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678 1981년11월24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November 24, 1981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NOV 25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부산, 휴일의 행락객등 태운
버스굴러 34명 숨져
중경상36명, 브레이크 파열

(서울-본사전화)일요일인 22일 부산동래에서 금정산을 다녀오는 행락객을 태운 중형버스가 10m 아래 낭떠러지로 굴러 34명이 죽고 36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 참사가 일어났다.

이날 하오 4시55분경 금성동을 출발, 장전동으로가던 동래산성교통(대표 : 강청자)소속 303호(부5자 3715호)버스(운전사 : 손춘일)가 경사 20도의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동래구 장전 2동 탄송로 중턱커브길에서 브레이크고장으로 10m 아래 벼랑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사고로 운전사 손씨와 승객 황영운(31)씨등 34명이 숨지고, 승객 강해숙씨등 3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버스에는 승객 68명과 운전사, 안내양합해 70명이 타고 있었다. 이 버스는 정원 32명의 두배가 넘는 68명을 태우고 있었다.

사고 버스는 해발 400m의 탄송고개를 넘어 폭6m의 경사길을 내려가다 사고지점 200m전방에서 브레이크 파열로 90도각도의커브길을 그대로 돌진, 30m정도 허공을 날다가 10m아래 솔밭속으로 처박혔다.

사고후 중상자들은 시내 각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 같다.

한국에 세계제1 운석구멍
천만년전 운석충돌로 생성

(서울23일=연합)한국중동부지역의 "해안분지"가 세계에서 가장 큰 운석 구멍이라고 화제를 모으고있다.

이 해안분지는 직경 8km 깊이 810m로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직경 1.2km, 깊이130m의 미국 아리조나에 있는 운석구멍보다 7배나 더크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이평호 박사가 주도한 탐사반은 서울동북부 130km에위치한 양구근처의 원형모양으로 된 계곡을 조사, 이같은 분지는 약 1천만 년전 혹성에서 떨어져 나간 운석이 지구와 충돌해 생긴 지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결론은 이곳 계곡이 일반 운석구멍의 특징인 대칭성 원형을 이루고, 지표가 운석의 주요성분인 철과 니켈을 다른 주변지역보다 3~5배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에근거를 둔 것이다.

과학자들은 모든 자료를 종합한 결과 문제의 계곡은 직경 188m, 무게 2억 4천7백만톤의 운석이 초속 66.5km의 속도로 떨어져 생성된 것이라고 한다.

◇에드몬톤의 결승골인 27야드 필드골을 키커 커틀러가 차 성공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동양맥주와 기술제휴
하이네켄, 한국에서

(서울21일=연합)21일한국 동양맥주는 네덜란드의 하이네켄 맥주회사와 등록상표인가와 기술제휴 협정을맺고 내달초부터 대규모의 맥주증산을 한다고 발표했다.

동양맥주의 이같은 움직임은 88년도 서울하계올림픽 기간동안 많은 외국관광객들의 국내유입과 관련, 맥주수요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이다.

동사는 올해 이미 240만달러상당의 맥주를 대만에 수출했으며해외시장을 확장,내년에는 홍콩,바레인,말레시아,인도에 맥주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5주년및 이전파티
한인신용조합

토론토의 한인신용조합(이사장 한상훈)은 월초 사무실을 641A 블루어·웨스트로 확장이전, 동 이전 자축및 설립5주년 기념파티를 12월11일(금) 하오5~8시 조합사무실에서 가진다. 조합원및 일반교민의 다수 참석을 바라고 있다.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통금철폐 3월로 연기
안전계획에 만전을 위해

(서울21일=연합)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통행금지 해제는 3월경으로 연기될 것이라고 21일 한국국민당 원내총무 이동진의원이 말했다.

한국 국민당은 최근 2차 차대전 후부터 지금까지일부지역을 제외한 한국전역에 실시된 통행금지의 철폐안을 국회에 상정, 정기국회기간동안 통과 시키기로 했다.

각당 원내총무들과 회담을 가진후 이총무는 통행금지철폐시기에 관해서 국민당이 주장한 82년1월1일을"가능한한 빠른시일" 로 수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성화 내무부장관은 이같은 연기는 정부가 통행금지철폐실시에 대비,안전계획에 만전을 하기위한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물러나는 이형인실협회장
2년동안 내실다져 실력단체로 성장

◇ 80년11월의<실협인의 밤>에서 연설하는 이회장

26일로 다가온 실협회장단선거전의 열기를 뒤로하며 조용히 인수, 인계 준비를 가다듬고 있는 온타리오 한인 실업인협회 이형인 회장(38 세)

실협탄생이래 최초로 임기를 채우고 퇴진하는 회장이기도 한 이회장은 "흔히들 얘기하는 회원배가운동은 지금의 실협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안된다. 우리 실협은 그동안의 착실한 성장에 힘입어 힘을 행사하는 단체로서의 실력은 충분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터시티 잡지수당, 사무장 채용, 우유, 빵, 담배 구매력 증대, 회원간 유대및 계몽강화등은 그가 재임시 이룬 업적중의 대표적인 예이나 무엇보다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와해의 위기에 있는 실협을 대외적, 대내적으로 명실상부한 한인들의 실력단체로 성장시킨 일.

"차기 회장단에 당부 하고 싶은 말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여러가지 사업보다는 단 하나라도 실현될 수 있는 일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이 앞으로 실협의 과제라고 말한다.

69년 캐나다 이민, 현재까지 근8년간 상점을 경영해온 이형인씨가 실협에 몸을 담기는 77년 협회 부회장직을 맡은 후부터이다. 김정곤, 김영대 두 전임회장은 각1년씩 밖에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이씨가 회장에 선출될 당시의 실협은 이사회와 집행부간의 마찰로 심히 흔들리고 있던 때였다.

80년 1 월의 회장단 선거에서 이형인씨는 (1)잡지문제의 해결, (2)밀크, 빵, 담배등 구매력 강화, (3)세무행정상의 문제점 계몽지도, (4)협회 융화단결을 공약으로, 2세를 위한 단합, 협회이익 추구등을 내건 이문영씨팀을 누르고 당선됐다.

본사가 지난 11월14일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이형인 회장 의 현집행부 재임시 업적을 잘했다고 보는 쪽은 37.8%, 못했다고 보는 쪽이 24.3%로 나타났었다. 이에 대해 이회장은 "물론 그동안 많은 불평과 비난도 받았으나, 그것이 바로 협회의 발전을 가져온 요소라고 본다. 못했다고 응답한 24.8%의회원이 협회발전의 관건을쥐고 있는 사람들이다."고말했다.

재임중 가장 아쉬운 점을 꼽자면 협동조합을 못이룬 것. 협동조합 설립문제는 이번 선거에 나선 임철원, 차선겸 두 후보측이 서로 내세우는 핫·이슈이다. 이회장은 "차기회장대에서는 단연코 협동조합을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기초작업이 다져졌고 협회의 대외공신력과 회원들의 열성을 바탕으로 이제 추진력만 있으면 가능하다"했다.

이회장은 이번 선거에 나선 한 후보가 "2년간 협회가 동면" 했다고 한 것은 좀 섭섭하다며, 최소한 출마 당시 공약한 내용은 빠뜨린 것 없이 실천,직원봉급도 제대로 못주던 당시의 협회내용에 비해 현저한 내실을 다졌다고 자부했다.

퇴임후의 계획에 대해 회원으로서 언제라도 협회가 자신의 경험을 필요로 하면 기꺼이 돕겠다면서 "그동안 가게를 보면서 하도 전화통을 붙들고 있는 바람에 손님들로부터 You never take down the phone on your Shoulder(네 어깨에는 항상 전화통이 붙어있어)" 라는 불평을 많이들었다고 자신의 비지네스에 다소희생이 따르더라도 사명감에서 회장직을 맡았고, 직책에 충실하기 위해 다른 한인 단체에는 일절 관여하지않았다 고 말했다.

가족으로는 부인과 2녀가 있고, 벌링턴과 토론토에 상점 2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찬영
변호사
537-3171-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너도나도 참여하여 우리권익 보호하자!

차선겸(회장후보)

김이열(부회장후보)

조기연(부회장후보)

존경하는 실업인협회 회원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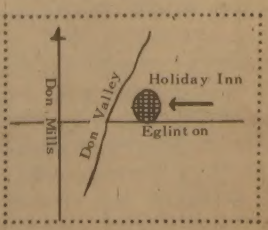
본협회의 총회가 오는 26일로 다가왔읍니다. 하루하루 바쁘신 일과에 분망하실줄 아오나 이제, 잠시 손을 놓으시고 우리 함께 한자리에 모이여,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갈길을 의논하십시다.

그간 협회의 활동이 다소 마음에 섭섭했다 하더라도 외면치 마시고 나날이 심각해져만 가는 경제적인 난관을 우리 함께 극복 하십시다.

● 총회일시 : 1981년11월26일(목)오후6시
● 장 소 : DON VALLEY, HOLIDAY INN
1250 EGLINTON AVE. EAST
(WYNFORD DR. 입구로 들어감)

※이시간 러쉬아워를 염두에 두시고 출발하시기 부탁 드립니다.

한인 실업인협회 회입후보팀
회장 : 차선겸
부회장 : 김이열
부회장 : 조기연



현명하신 판단으로 우리실익 추구하자!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에드몬톤 고전끝에 우승

토론토는 미스 그레이컵·쟁취

◇미스 그레이컵의 영광을 안은 토론토 아그노의 치어리더 히스럽양이 환한 웃음과 혀를 내밀고 있다.

(몬트리얼) 캐나다 풋볼서 가장 강한 팀으로 알려진 에드몬톤·에스키모가 예상대로 오타와·러프라이더를 누르고 CFL우승을 차지,4년연속 그레이컵을 차지했다.

그러나 에드몬톤팀은 경기종료때까지 우승에의 낙관을 불허하는 아슬아슬한 경기로 많은 도박사들을 손에 땀을 쥐게했다. 스코아는 26 : 23.

22일 영하의 날씨에 몬트리얼 올림픽 스타디엄에 모인 53,307명의 관중은(입장권 판매수) 취어·리더에 나선 미녀들의 응원전을 더욱 기대. 게임 자체는 시시하리라 생각했었다.

실질적으로 티켓 예매때까지 스타디엄에 나타난 관중은 약 45,000명 정도.경기시작전 울상이 된 암표꾼들은 반값에라도 표를 팔려고 기를 썼다.

그러나 경기는 종료 3초전까지 23 : 23 타이. 에드몬톤의 킥커 데이브·커틀러가 마지막 찬스에서 27야드 필드골을 성공시켜 극적인 승리를 몰고왔다.

오타와는 루키(신인) 쿼터백 줄리어스·왓트가 게임을 주도. 에드몬톤의 타이트한 수비를 뚫고 전반을 20 : 1로 리드했다.

그러나 에드몬톤팀은 후반들어 전반 후반에 교체되어 나온 CFL 최고의 쿼터백 워렌·문을 주축으로 하여 잇달은 2개의 텃치다운을 성공시켜 스코아를 20 : 15까지 좁혔다.

이후 양팀은 몇개의 필드골을 주고 받았으나 결국 저력의 에드몬톤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경기전 대부분의 도박사가 21점차 이상으로 에드몬톤의 승리를 예상,많은 풋볼팬들을 울상이 되게 했다.

이로써 그레이컵이 걸린 CFL은 81년도 전 스케쥴을 끝냈다.

반면 이날 결승에 앞서 열린 미스 그레이컵에 에토비콕에 사는 미스토론토·아고스·달린·히스럽양이 당선. 토론토는 남성보다 여성이 우세함을 증명했다.

노래봉사 등불중창단

29일 자선음악회

소문없이 노래봉사로 크리스챤적 이웃사랑을 펴는 처녀보컬클럽「등불중창단」의 제3회 음악회가 오는29일(일)하오7시 토론토한인장로교회 본당(1183 Davenport Rd)에서 열린다.

이은숙,이은주,권성희,서선희,채성은의 5명으로 구성된 이 중창단은 이날의 공연을 한인와이즈맨즈클럽이 벌이는 양로원기금돕기 자선음악회로 연다.

따라서 입장료는 없고, 특지가들의 회사를 받아들여 양로원 건립에 보태기로했다.

등불중창단은 발족이래 양로원,병원등을 방문, 노래,기도등으로 불우한 이웃을 도와왔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교 민 동 정

◆장연탁(조각가)·구자승(화가)=10월15일 토론토 출발, 34일간의 미국횡단·멕시코까지 가는 미술여행을 마치고 지난18일 토론토 돌아왔다.

LA체류 화가 신동현씨와 더불어 시카고－미네아폴리스－옐로우스톤·파크－요세미레·파크－샌프란시스코－LA－멕시코의 엔사나다－라스베가스(LA)－데스밸리－그랜드캐논－덴버－켄사스시티－내스빌－워싱턴－뉴욕－토론토의 장장 3만여 마일의 여정에서 이들은 곳곳의 자연미·고적감상·미술관 관람및 스케치와 슬라이드 촬영을 하며 보다 알찬 영양소(미술소재) 섭취를 하고 왔다.

즐거운 고요한 밤

200교포 모여 크리스마스파티

토론토한인와이즈멘 알파클럽(회장 차선경)·베타클럽(회장 이석현) 공동주최 크리스마스파티가 지난21일밤 6시~11시 토론토 다운타운 홀리데이·인에서 약 200명의 교포 참가로 성대히 열렸다.

홍승규 베타부회장 사회로 열린 이날 파티는 조덕남(크리스마스·캐럴 지도)·천중환(오락프로 지도) 양씨의 협조로 진행, 김순창 베타 직전회장의 만찬기도, 월터·비참 목사의 크리스마스 메시지·이석현 베타회장의 개회사, 차선경 알파회장의 폐회사등의 공식절차 외에 아래와 같은 특별프로가 있었다.

캐쉬바·천교의 시간에 이어 만찬의 시간 사이사이에 크리스마스·캐롤은 조더남씨 지도, 유만식·권혁일군의 기타 반주로 엮어졌으며, 찬조출연으로 나온 소프라노 노혜일씨는 박승희씨의 피아노 반주와 함께 크리스마스송을 열창했고, 이은숙양등 5명의 보컬클럽 등불중창단은 "울려라 종소리" "Un to thee O Lord" 의 2곡을 선사했으며, 해마다 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록댄스를 이끌어온 박옥선씨가 "징글벨" "이사도라"디스코등의 음악을 곁들여이날도 록댄스를 리드했다.

경품부 프로로는 천중환씨 사회의 크리스마스·카드 짝찾기로 한장의 카드를 4쪽으로 잘라 한장씩나눠준 후, 같은 짝(세트)맞추기로 먼저 맞춘 2개팀(각 4명)에 시상했다. 차이니스·억션(경매)은 유영갑씨가 맡아 4개의 상을 시상했고, 수익금은 YMCA 기금으로 기증했다.

이어 김창열씨 주재 캐쉬드로(번호표 사서 제비뽑기)에는 $1짜리표 400여달러가 팔려, 당첨된 박부용씨등 2명의 행운아는 각 60달러 받은 상금중 일부를 도로 즉석기증, 캐쉬드로에서 얻어진 수익금과 함께 Y돕기에 충당됐다.

끝으로 $25의 만찬회 입장권 경품뽑기에서는 근20개의 상품중 최고상인 TV수상기는 토론토 주재 박영철 부총영사가 당첨됐다. 이날 박씨는 동반 조카딸과 더불어 3개의 상을 타는 톱행운을 차지했다.

TV 카메라로 모니터하는 방법은 작업장에서 가정의 안전장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뉴저지 아틀란틱 시티의 리조트 인터내셔날 카지노 윗층에는 108개의 TV모니터가 설치된 방에서 사기 숫법을 쓰는 노름꾼이나 고객을 속이는 딜러를 감시하고 있다.

한인 목사상대로 현금사취

미국인 사기한에 두 목사 피해

한인사회를 잘아는 미국인 3인조 사기한들이 한인목사들에게 장거리전화를 걸어 딱한 처지에 있는 한국인을 도우라고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는 사기사건이 연발, 교역자들을 비롯한 교포사회의 선량한 지도자들에게 경각심을 자아내고 있다.

【잭슨빌 안이숙 주재기자】 지난10일 상오11시경 잭슨빌(플로리다) 모 한인교회 H목사에게 뉴욕의 경찰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딱한 한국 여인의 여비를 도와 달라는 전화가 왔다. H목사는 영어가 짧아 잘 이해하지 못했고 혼자 결정하기도 어려워 K집사(의사)의 전화번호를 대주었다.

이 사기한들은 K집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뉴욕시의 경찰이라고 밝히고 잭슨빌에 거주하는 국제결혼한 한국여성이 여비가 없어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 한국 여성이 장님이며 4명의 자녀를 갖고 임신중인데 뉴욕의 시집 장례식 참석후 귀가하려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흑인 3,4명에게 강도,폭행을 당했으며 입원후 이틀만에 퇴원했으나 빈털털이가 되어 플로리다로 돌아갈수가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뉴욕 사회복지센터에 연락했다가 다시 플로리다 사회복지 센터로 연락했으나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있어 뉴욕의 한국 총영사관에 의뢰했는데 담당 박영사가 출장중이므로 임시 융통을 하면 결재를 받아 후불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H목사의 교회에서 임시 융통을 해달라고 말하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뉴욕 시경의 사이먼이라는 간부와 통화하라고 일러주었다.

K집사가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수사반장 사이먼이라는 자가 375달러를 전신송금해달라고 설득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어 뉴욕총영사관의 여비서라는 사람에게서 K집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영어로 박영사가 출장에서 오는 즉시 돈을 환불할터이니 즉시 뉴욕으로 송금해달라고 부탁했다.

K집사는 H목사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돈을뉴욕으로 보내자고 말해 H목사는 황급히 서둘러 개인돈 375달러의 전송료 25달러를 들여 송금했다. 잠시후 뉴욕 경찰관이라는 사람들이 돈을 잘 받았다고 H목사에게 전화를 하고 이 한국여인이 잭슨빌에 도착하면 H목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후 이틀이 지났으나 그 여성의 연락이 없자 앞서 뉴욕경찰의 전화라고 알려준 번호로 연락했으나 공중전화임이 발각됐으며 그 여성의 잭슨빌 주소도 가짜임이 발각됐다. 그러자 H목사는 11월10일자 한국일보 뉴욕판에 보도된 흑인의 한인목사 사기사건을 읽고 더이상 한인 목사들의 피해가 없도록 알려달라고 한국일보 아틀란타 지국에 알려왔다.

【뉴욕지사 10일】 뉴욕지역 엘름허스트의 N목사는 지난 10월30일 저녁 6시경 플로리다의 잘아는 한인 목사로부터 뉴욕에서 한국 여인의 남편인 한 미국인이 어려움이 있다고 연락을 했으니 도와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어 한 남자가 N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부인이 한국 여성이며 임신중인데 타지방에서 왔다가 버스정류장에서 여비를 도난당해 귀가할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뉴욕 총영사관에서 갚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N목사는 동정심으로 275달러를 갖고 항만청으로 찾아가 키가 작은 20대 후반의 단정한 흑인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후 이 사람이 알려준 경찰 전화번호는 공중전화번호였고 총영사관이 갚을 약속도 한일이 없음을 발견했다

한편 시카고 트리뷴은 2－3주전 중국인 목사를 상대로 이와 유사한 전화사기가 있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퍼스안에서 1백쌍이 키스－캘스테이트 리버사이드 캠퍼스에서 때아닌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들은 Cancer Society멤버로 금연운동을 소개하기 위해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낸것.〈리버사이드 〉

「칠전팔기」의 피엘샐린저

케네디 대변인이후 외로움 계속

이란사태 특집보도와 저술로 행운잡아

풍운의 언론인 피엘 샐린저씨가 「미국 인질이 되다」라는 책을 최근 출판,다시 영광의 시기를 맞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의 공보비서로 고위 관직에 오르기도 했던 샐린저의 생애는 「칠전팔기」의 용기와 재치로 점철된 것이다. 금년56세인 샐린저는 12살때부터 기사를 쓰기 시작,신문·잡지·방송을 돌아다녔다. 케네디에게 기용된 것은 1957년「콜리어」잡지사에서 일하면서 팀스터 노조를 조사하던 때인데 잡지사가 폐업하여 상원에서 노조를 조사하던 케네디 의원에게 발탁됐던 것이다. 63년에 케네디가 암살된후 68년에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30만달러 빚을 진 샐린저는 이혼을 당했고 72년 대통령 선거에서 맥거번의 선거 사무장을 했다가 또 고배를 마신후 정계를 떠났다

프랑스로 돌아간 샐린저는 프랑스 주간지 「르엑스프레스」에서 미국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유럽인들에게 알려 주었으나 5년간 근무한후 회사내의 세력다툼에 편을 잘못 들어 밀려났다. 3년전인 이때 그는 ABC뉴스의 파리 지국장으로 기용되어 프랑스의 생활방식을 다시 미국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단 1분40초짜리 뉴스시간을 얻으려고 해도 통사정을 해야 되던 입장이 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79년11월 이란의 인질사태가 터지면서 그의 운명에 8번째의 새전환점이 왔다.

당시 이란 내부 사정을 모르던 카터 행정부는 인질협상을 누구와 시작을 해야될지 막막한 상태였다. 그런데 그해 12월1일,인질사건 28일째에 샐린저에게 걸려온 전화가 있었다. 샐린저의 진척을 안다는 프란코이 체론이라는 이 사람은 이란 외무상 곳브자데의 변호사였는데 미국 정부와의 접촉을 샐린저에게 부탁해 왔다. 약속을 한 샐린저는 미국의 프랑스대사 아더 하트만씨를 만나 양국 협상의 길을 텃고 그 댓가로 사건 진전을 상세히 파악할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덕분에 이란이 인질극 초기에 흑인과 여성 인질을 석방할때 샐린저는 프랑크프르트 공항에서 TV취재반을 대고 독점 취재를 할수 있었다.

인질협상의 진전,이란 내부에서 인질 석방을 두고 우여곡절의 결정을 수차례 변경한 결과,샤 팔레비가 미국서 파나마로,이집트로 피신하는데 얽힌 배후의 이야기등을 알게된 샐린저는 책을 쓸 야심을 감춘채 인질 석방이 임박했던 80년12월 TV특집을 녹화했다. 뉴욕 플라자 호텔에 숨은 TV 제작반이 여러 보도 자료와 샐린저의 기록을 모아 32일간 녹화한 필름이 81년 1월20일 인질이 석방된 후 2일만에 ABC－TV로 방영됐다. 「미국 인질이 되다:비밀 협상들」이라는 이 3시간 짜리 특집은 샐린저의 해설로 힛트를 친 것이다. 샐린저는 이 보도로 내년에 TV상의 절정인 엠미, 피바디,듀폰상 3개를 모두 휩쓸게 될 것이다. 이 보도로 TV의 스타 지위를 굳힌 샐린저는 이 내용을 곧 책으로 옮겨 출판을 서둘렀다.

그러나 그의 책을 늘 출판해오던 더블데이 출판사가 이번에는 관심이 없다고 외면했다. 여기에서 샐린저는 옛 상전의 부인인 잭키 케네디 오나시스 여사에게 불평을 하자 잭키는 다시 친구에게 애기를 전하고 1시간안에 더블데이 출판사 사장이 샐린저의 호텔을 찾아와 악수를 청했다.

샐린저를 다시 돈방석 위에 앉히게 될지는「AMERICA HELD HOSTAGE: THE SECRET NEGOTIATIONS」(16달러95센트)가 서점에서 얼마나 잘 팔릴 것이냐에 달려 있으나 여하튼 그는 언론의 스타가 다시 된것이다.

공 고

82년도 한인주소록 제작에 대한 입찰을 81년도 11월17일 오후3시에 실시하였던 결과, 칠성인쇄소(대표 이인용)가 낙찰 되었기에 공고합니다. 또한 본 한인회는 정확한 주소록을 제작하기위하여 교민여러분께 협조를 부탁하오며 칠성인쇄소(789－7351～2)로 주소변경 혹은 주소첨가를하여주시기 바라며 사업을 하시는 교민여러분께서는 본 한인회 를 돕는 뜻에서 많은 광고를 게재하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1981년11월18일

토론토지구 한인회장
박 인 순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문밖의 손님을 감시 또는 대화할때
어린애를 감시하고 놀볼 때
실외에서 노는 어린이를 감시할때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 성 사 668 BLOOR ST. W. ☎ : 533－4125

종 합 보 험

김 홍 량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상점보험
●사업보험
●R. R. S. P.
●INCOME AVERAGING ANNUITY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수상 2제 (상)

유 인 형 (문협회원)

챠 스 타

Reservation을 지날 땐 긴장되었다. 포장도 안된 자갈길이었다.

「여기서부터 인디안 보호구역임」이란 안내표지가 무슨 경고처럼 느껴졌다. 가도 가도 산림의 숲속에 통나무집이 하나 둘 나타났다.

「귀신 잡는 청룡이 옆에 있는데 뭘!」

「이럴 때만 해병을 찾는군.」

높낮은 구름을 지나면서 초행길이라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다.

「이 길이 맞아?」

「측량사가 그것도 모르면 누가 알아?」

「어디서 불화살이라도 날아올 것같군.」

진흙 투성이의 산길에는 엉뚱하게도 맥주병들이 뒹굴고 있었다. 폐차도 드문드문 잡초 위에 버려져 있다. 더 이상 굴러가지 않으면 아무 곳에나 팽개쳐 버린 문명의 찌꺼기가 숲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어, 어렵쇼?」

「태운지 뭐. 길도 알아볼겸.」

술병을 한손에 들고 갈지자로 걷던 인디안 여인이 손을 들고 있다. 내 옆자리에 타자마자 솜사탕처럼 홍겨운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독신녀라고 소개를 한다.

「미스와 나란히 앉으니 썩 어울려!」

「크우, 냄새…이형 피곤하실 터인데 운전 좀 바꿔 합시다.」

이형은 쿡쿡 웃었다. 인디안 여인은 앞이빨은 어디서 빠졌는지 연신 독한 위스키를 마셔대며 치렁치렁 따내린 댕기를 만지작거리었다. 저기 보이는 이동식집은 오빠네 집이고, 저 능선 위에 있는 통나무집은 언니네 집이란다. 또 저기 보이는 집은 삼촌네이고, 이쪽 것은 사촌의 집이란다.

그리고 보니 한 장소에서만 살아온 부족들은 거의 혈연관계가 되는 셈이다.

「아가씨, 당신집은?」

「놓」

야단이다. 집없는 아가씨를 태웠으니 어디에다 내려놓을까. 똑똑한 청년들은 밖으로 나가 새 생활을 찾지만 술고래 아가씨들은 언제나 취하여 지내고 있는 모양이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이면 술 몇병을 놓고 파티를 벌이기만 하면 어떠한 목표가 있을까.

한참 달리다가 주유소가 있는 곳에 도착하였다. 연료값을 먼저 받고 기름을 넣어준다. 카나다에 이러한 곳도 있다니 알 수가 없다. 음료수 몇병을 사고 다시 시동을 거니 그 아가씨가 보이지 않는다.

「저기서 손짓을 하고 있군.」

주유소 뒤로 걸어가면서 손을 흔드는 그녀에게 답례를 해주었다. 차는 북으로만 올라가다가 자갈길의 종점에 멈추었다. 태고의 원시가 그대로 펼쳐진 곳에 반달 모양의 호수가 있었다. 호수의 가운데엔 섬이 있고, 백조와 펠리칸들이 어울려 한가롭게 떠 있었다. 아직 인간의 파괴가 없는 정적과 시원한 산소가 있는 그런 곳이다. 우린 서둘러 보트를 끌어다 수로에 띄웠다. 수로는 좁고 장애물이 많았다. 약 삼백미터쯤 전진하다가 스크류에 고장이 났다. 암석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빨 빠진 당신의 애인 때문이야.」

「누가 태우자고 했어?」

노로 저어 나가다가 부득이 뒤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썩은 나무가지와 수초와 그리고 겁없이 덤벙거리며 사람을 놀라게 해주는 비바들이 있었다. 미개척지대여서 도선장이 있을 턱이 없다. 간신히 보트를 끌어 올려놓고 지쳐빠진채 수풀에 벌렁 누워버리었다.

「흥, 활량하게 누워있군. 어서 가서 나무를 해와.」

내가 마른 나무를 하려고 호숫가를 벗어나자 털털거리는 추럭이 굴러오고 있었다. 가만히 보니 세명의 장정들이 총을 들고 있었다.

「아니, 저 친구는 칼까지 차고 있잖아!」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려는가. 이형에게 달려갔다.

「진짜 본토인들이 나타나셨어. 오랜만에 태권도로 몸좀 푸셔야겠어!」

「당신은 뭘하고?」

인디안 장정들이 가까이 오더니 그대로 옆길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이 친구들 인사성이 없군. 헤이, 하이!」

「핼로우.」

한명이 뒤돌아왔다. 리더인 그가 챠스타였다.

「무슨 일이요?」

어제 무스를 두마리 사냥해 놓고 그걸 운반하러 가는 길이었다. (계속)

줄리아드 콩쿨서 1位

— 바이얼리니스트 김진씨

줄리아드 대학원 졸업반인 청년 바이얼리니스트 김진씨가 콘체르토를 위한 동대학 바이얼린 콩쿨에서 1위로 입상했다.

1위 입상자에게 주어지는 영예로 그는20일 식스틴·어링교수가 지휘하는 줄리아드필하모닉과 협연했다.

줄리아드 알리스·줄리홀에서 열린 협연서는 알렉산더·아라주노프바이얼린콘체르토를 연주했다.

▲김 진씨.

다섯살때부터 바이얼린을 배운 김진씨(24)는 10살때 이미 필리핀심포니오케스트라와 마닐라에서 협연했다.

서울 예원중학1학년을 마치고 일리노이주립대음대 장학생으로 뽑혀 도미했다.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 사
광고국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⑯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열흘째 되는 어느 오후에 그는 강줄기가 구부러진 곳을 돌다가 뜻하지않게 백인의 통나무집을 발견했다. 통나무집은 평방 10피트정도의 넓이였는데 가꾸미에게는 상당히 커보였다. 집안은 조용했고 굴뚝으로 세워둔 양철로 된 물통에서는 연기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강 윗쪽으로부터 얼음이 갈라지는 천둥같은 소리만 들려왔다.

가꾸미는 굶주린 개들을 정지시키고 오두막집을 무섭게 쏘아보면서 그의 부적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다.

통나무집 문은 열려 있었다. 눈은 유리창이 없는 통나무집 안으로 깊이 쌓여있는데 한쪽으로 나무로 만든 침대가 보였다.

무엇인지 그위에 누워있는것이 보였다.

가꾸미의 가슴은 놀란참새가슴처럼 벌떡거렸지만 그는 무서움에 질린 큰 눈을 부릅뜨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소름끼치는 끔찍한 광경을 발견하게되었다.

온얼굴에 털투성이인 백인의 얼어죽은 시체였다.

혼비백산한 가꾸미는 그것이 호숫가에서 불러본귀신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는 두번째 만나는 이 무서운것이 한때 자기를 피해버린 토른락이기 때문에 정복하지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입속에서 동물같은 이상한 말을 뱉으며 그는 뛰어들어가서 얼어서 빳빳한머리칼을 움켜쥐었다. 그는 빳빳이 굳은 시체의 머리를 껴안고 씨름을 했다. 가꾸미는 자기가 싸우고있는 머리에다 대고 무엇인가 마구 질문을 하고 소리지르는 자신의 목소리를희미하게 듣고있었다.

그것은 칠흑같이 어둠에싸일 때까지 계속되었다.

백인의 머리가 점점 커지더니 세상만큼이나 커졌다. 그리고 갑자기 시체의 얼어붙은 입술이 갈라지고 격변하는 소리가찢어질 것같은 목소리로 울려왔다.

가꾸미는 자기의 귀로듣지 않고 그의 토른락의 말로 더 남쪽의 수림지대로 여행을 하라는 지시를 들었다. 그것뿐이었다. 그는 개들이 얼어붙은 강을 따라 가는동안 자신이 썰매위에 누워있는것을 발견한 것이 전부였다. 가꾸미는 그가 본 토른락이 이 지역에 발을 들여놨다가 그해 겨울 병으로 죽은 젊은 백인사냥꾼의 시체였다는 사실을 전연 알지못했다.

그는 여행중에 일어난것을 거의 기억을 못했다. 어느날 그의 썰매가 큰 호수의 만으로 접어들었다. 멀리서 개짖는 소리가 들려와서 바라보니 여러개의집과 텐트위로 연기가 솟아올라왔다. 그의 앞에는 그당시 북극에서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 백인무역소가 있었던것이다. 그의 이상한 썰매를 보고 사람들이 내려왔다. 가꾸미가 도착할 때 있었던 사람들중에 한 인디안과 두백인이 아직도 살아있다. 백인중의 한 사람은 목사였고 다른 사람은 오래전에 은퇴한 무역자였는데 죽는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인디안과 두백인은 오랫동안 가꾸미를 기억했다. 그가 인디안 지역으로 들어온 것이 발견됐더라면 즉시 총을 맞아 죽었을지 몰랐기 때문에 백인들은 가꾸미의 여행이 얼마나 무시무시했었는가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북쪽의 미개지역서온 이 낯선 사람을 잘대접해준데에는 각자가 다른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목사는 가꾸미를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 들어보지못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교량역할을 해주기를 바랐고, 무역자는 엄청나게 값비싼흰 북극여우로 가득찬 툰드라의 깊숙한 황무지에 살고있는 잘 알려져있지 않는 에스키모 사냥꾼과 재빨리 관계를 맺고싶어서였다.

이들 두사람은 가꾸미가 자기동족에게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고, 또 돌아가서 많은사람들을 이 무역소까지 데려오도록 설득하기로 했으며, 적어도바렌과 무역소를 연락하는중계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다. 그무역자는 한때 해변가에 살아본 일이 있어서 이누이트 말을 어설프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가꾸미의 괴상한 말을 배우느라고 진땀을 뺐다. 그는가꾸미를 자기집으로 데려가서 값진 물건을 잔뜩 주었다.

무역자는 가꾸미에게 자기 상점과 창고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했다.

거기에는 북쪽에서 온사람 에게는 황홀한 물건들이 끝이 없이 진열 되어있었다.

(계속)

◆◆◆◆ 앙 콜 쇼 ◆◆◆◆

지난 제1차 밍크쇼에 성황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앙콜쇼를 다시 갖게 된 이유는 교민들의 재청에 의해서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교민들이 원하시는 다양한 품목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중순에 앙콜쇼를 다시 가질 예정입니다.

품 목:
● 모피제품(밍크, 친칠라, 링스, 무스, 라쿤, 각종 FOX, 비버)
● 보 석 :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싸파이어, 진주, 비취, 오팔 등)
● 고급시계류 : 파격적인 가격으로 세일 합니다..

이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세)全한新聞

豫算案 削減규모로 對立

民韓 3千億·국민 2千億제시

政府 民正 最低讓步線 마련

野, "擔稅率 28%증가는 無理"

오는27일 豫決委에서 새해豫算案을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정기국회는 各政黨간에 異見을 보이고있는 예산의 削減규모와 각종 稅法案의 조정을 위해 民正 民韓 국민등 3黨의 3役이 — 첫모임을 갖는등 各黨의 見解差를 좁히기위한 막바지절충을 벌이고있다. 이에따라예산안과 稅法案협상은 빠르면 이번週末이나 來週에가서 타결될것으로 보인다.

합의못본 각종 稅法개정案

3黨 3役들會同、異見조정

예산안 削減규모에대해 民韓黨은 3천64억원선을, 국민당은 2천1백억원을 削減案으로 내어 놓고 있다. 野黨은 景氣不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새해에 정부의 예산안은 올해보다 22.2%가 늘어난 팽창예산으로서 이에따라 국민의擔稅率도 今年對比 28.7%나 증가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에따라 정부가 새해에 추진하려는 8%성장목표를 6%로 내리는한편 국민의 稅負擔을 크게 輕減하기위해 不要不急한 經常費나 投融은 대폭 삭감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與黨인 民正黨은 정부측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適正규모의 削減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측은 稅法심의 과정에서 나타날 歲入면의 削減과 아울러 국회에제출된 예산안에는 반영되지않은 정부기구 축소조정에 따른 削減額등 정부가 양보할수있는 最終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는데 이에따라 民正黨의 削減규모안은 빠르면 週末이나 내주에가서 윤곽이 드러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나 民正黨은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는과정에서 民正黨의 요구로 이미 4백억원을 깎았기때문에 野黨에서 주장하는수준을 삭감할수는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與野간에削減규모를 조정하기위한 진통이 계속될것 같다.

한편 20일로 稅法案심의를 마무리한다는 日程을 잡고있는 財務委의 稅法심사小委는 그동안 所得稅法부문에서 敎育費공제도의 도입과 關稅率의 조정원칙등에 합의를보았으나 가장큰 爭點이되고있는 所得稅의 人的공제액과稅率은 물론 교육세 新設 자체에 대해서도 與黨은 찬성하나 野黨은 반대하는등 정면대립을 여전히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교육세의 재산세 附加방법에 대해서는 民正黨이 다른 방안을 찾도록 정부측에 철회를 촉구하고있는 실정이다.

民韓黨은 所得稅法개정에서 현행11만원인 人的공제액을 17만원선으로 인상할것을 주장하고있으나 民正黨은 정부안 11만원선을 固守하고 있고 그외에도 障害者공제를 비롯 日用근로공제·寄與金특별공제, 의료비공제, 근로소득공제등 각종공제제도와 종합소득稅率등에서 여전히 與野간에 異見을드러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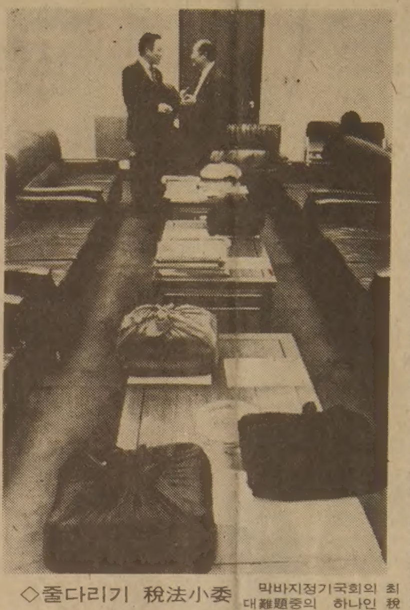
또 租稅減免규제법에서 法人의 最低稅率, 특별소비세에서 TV냉장고 피아노에 대한 稅率, 法人稅率등이 아직 합의를 보지못한채 難題로남아있어 20일중에 타결되지않는한 稅法小委의 또한차례활동 時限연장이 불가피할것같다.

民正·民韓·국민등 3黨의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등 3役과 議政同友會회장은 19일저녁 汝矣島의 Y음식점에서 모임을갖고 정기국회운영과 정치자금등 제반정치문제에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11代국회에들어와 3黨 3役이 처음으로모인 이자리에서는 현재豫決委에서 논의하고있는 예산안削減규모와 財務委稅法小委에서 심의중인 각종稅法案에 대해서도 각경당의 의견조정을 시도했다.

이날 모임에서 民正黨은 他黨에 대해 후원회구성을 서둘러줄것을 요청했으며 民韓·국민당은 이에대해 가능한한 금년내에 발족될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자리에서는 또 12월초 각 정당의 운영비를 充當하기위해 4억원의 國庫補助를 정부측에 건의하기로 했다.



◇줄다리기 稅法小委 막바지정기국회의 최대難題중의 하나인 稅法協商은 與野의줄다리기에다 神經戰까지 겹쳐 좀처럼 타결기미를 보이지않고있다. 19일하오 財務委의 稅法小委회의실에 의원들은 모두자리를뜬채 한동안 자료보퉁이만이 회의실을 지키고있다.

所得稅法등 難航거듭

24일 財務委서 表決로 처리할듯

稅法심사、敎育稅 金融·保險서 附加案도

국회財務委의 稅法심사小委는 19일 李承潤재무장관을 출석시킨가운데 그동안 합의를 보지못했던 소득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租稅감면규제법등 중요爭點부분에 관한 마지막 절충을벌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채 난항을 거듭하고있다.

小委는 活動時限 최종일인 20일까지 타결점을 찾지못할 경우 심사를 끝낸 부분에 대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붙여 오는 24일 열리는 財務委 전체회의에 회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小委는 20일 교육세부분에대한 심사에 착수하는데 民正黨측은 정부원안중 재산세부가부분을 철회하는 대신 재산세에서 생기는 稅收결함부분에대해서는 금융업과 보험업부분에 교육세를 附加하는방안을 마련한것으로 알려졌다.

民正黨은 이날 소득세부분에 있어서 人的공제액을 인상할경우 稅收결함이크다는 이유로 인적공제액은 정부原案 그대로하고 대신 근로소득공제액의 下限線을 정부안82만원에서 90만원선으로 인상할 것을 제시한반면 民韓黨측은 당초17만원선에서 다소후퇴, 人的공제액을 2~3만원 인상할것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교육비공제에 있어서 民正黨측이 대상을 月給與 80만원선으로 제시한 반면 民韓黨측은80만원선으로 늘릴것을 주장하고 있다.

大企業 納品代 늦추면 制裁

두달넘기면 額數만큼 貸出중단

中小기업보호 法人化엔 稅制지원도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해주기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납품대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대기업에대한 은행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이와아울러 번잡한 보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격증·소지자 의무채용규정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18일 상공부가 全斗煥대통령에게 보고한 中小企業支援제도개선방안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은 60일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1·4분기중의 납품대금지급현황을보면 현금을 바로 지급한것은 22%에 불과하고 38%는 60일이내에 그리고 나머지 40%는 60일을 초과함으로써 중소기업의자금난을 가중시키고있다.

상공부는 이처럼 납품대금지급이 지연되는것을 막기위해 50억원이상 대출을받은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지급할때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발행하면 기일을초과하는 어음발행상당액만큼 융자를 제한키로했다. 이와아울러 납품대금지급 지연 시정유예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단축하고 물품인수증도 납품즉시 발행토록 제도화하기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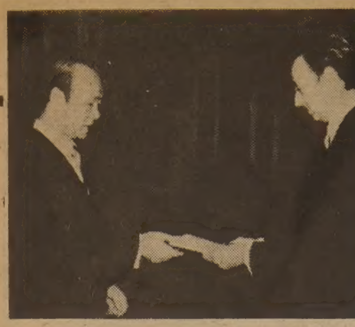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계획의 일환으로 보고된 중소기업지원제도개선방안은 또 각종法律에의거, 중소기업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는 자격증소지자의 종류가 19종에달하고 있는데 이들자격증소지자들이 중소기업취업을 기피하고있을뿐아니라 자격증소지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되기때문에 이것이 중소기업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상공부는 이처럼 중소기업에 과다한 부담을 주고있는 사항을 시정하기위해『中小企業의 法的의무고용자 공동채용에 관한法律』(가칭)을 제정, 공업단지·협업화단지등 중소기업이 밀집된지역에서는 공동으로 자격증소지자를 채용, 공동으로 활용할수있도록하는한편 협동조합과 中小企業진흥공단에서는 자격자를 공동채용, 여타중소기업에 순회하면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또 중소기업이 행정기관·금융기관·경제단체등으로 부터 과다하게 요구되는 각종보고사항을 대폭축소하기위해 보고정비실무위원회를 설치, 보고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80년중 25개업체를 표본조사한결과 중소기업이 각급관계기관에 보고한 서류는 평균96건, 가장 많은 곳은 연1백97건의 보고사항이 요구되고 있으며 내용별로는 생산실태에 관해 8개기관, 경기동향및 전망에관해 11개기관이 각각 중복으로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큰부담을 주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부는 이밖에도 중소기업에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모기업이 하청기업의 품질향상을위해 실험시설, 검사설비등에 투자할때는 10%의투자세액공제를 해주고 전중소기업의 78%에해당하는 개인중소기업의 법인화를 유도하기위해 현물출자때의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포르투갈·튀지니 두大使信任狀받아 全대통령

全斗煥 대통령은 19일상오 청와대에서 프란시스코·발타잘·모이타 駐韓 포르투갈 대사(日本常駐)와 봉세프·자파르 駐韓튀지니대사(〃)로부터 차례로 信任狀을 제정받았다. (사진) 이자리에는 盧信永 외무부장관이 배석했다.

88 서울올림픽 誹謗

北傀 "分斷固着"운운

【서울=聯】88국제올림픽서울유치에 관해 그동안 굳게 함구해오던 北傀는 19일 대남흑색방송인 통혁당방송을 통해 이를 온갖 악랄한 의도로 헐뜯고 나섰다.

북괴의 이 방송은 이날 우리민족의 땀과 의지의 승리로 집약되는 이 민족적인 쾌거를『南韓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분단상태를 고착시키고 두개의 한국을 조작하려는 흉악한 목적을 추구』운운으로 왜곡 비방하면서 이 올림픽개최가『우리민족과 국제여론에 대한범죄행위』라고억지생떼를늘어놓았다. 北傀의 이방송은또한국 정부의 88서울올림픽을 위한 각종 준비상황을 사사건건 헐뜯으면서 이를『애국민중을 탄압교살하려는 책동』이라는등의 궤변까지 서슴지않았다.

'86아시안게임도 서울誘致키로

交涉團3명 22일 뉴델리로

平壤과競合 거의확실

오는 86년도 제10회 아시안게임의 개최지를 결정하는 아시아 경기연맹(AGF)評議員 總會(印度 뉴델리·11월26~27일)에 참석하는 한국대표 3명(曺相鎬 KOC위원장, 全祥振KOC부위원장, 崔萬立KOC명예총무)은 22일 상오9시10분 KAL便으로 떠난다.

3명의 대한올림픽위원회(KOC)대표는 이번 총회에서 86년아시안게임을 서울에 유치하기위한 교섭활동을 벌이게된다.

제10회 아시안게임 개최문제와 관련, 당초 한국을비롯하여 북한과 이라크가 개최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최근 이라크가 개최신청을 포기할 가능성이 짙은것으로 알려져 이번 뉴델리 AGF총회에서 86년 아시안게임 개최권을놓고 남북한의대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KOC는 제10회 아시안게임의 서울유치를 실현시키기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북한은 공산권과 친북괴회원국을 중심으로 주變유치에 열을 올리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市場法개정안 商工委정책질의

국회상공위는 19일하오 徐錫俊상공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가낸 市場法개정법률안에대한 질의를벌여 李台燮, 黃炳竣(이상民正) 高永耉의원(民韓)등으로 審査小委를 구성했다.

이날 尹國老, 黃炳竣, 高源駿의원(이상 民正) 許京萬, 申字休, 高永耉, 李元範의원(이상民韓)등은 ▲市場法人에 경영진단이나 기업분석을가능케한이유 ▲사단법인에 시장개설허가를하려는 이유 ▲판매사자격신설등을따진후 특히『시장개설자의 횡포를방지하는 방안이무엇이냐』고따졌다.

徐장관은 답변을통해『시장법을 고치려는것은 현재 무질서하게 널려있는 시장을 위해서』라면서『시장의 현실적 문제점을 시정하기위해서는 백화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61

社会漫評

바쁘십니다……

地平線

11월에는「이름붙은 날」이 별로 없다. 1년내내 국경일과 명절, 기념일이 있는듯 하나, 그 분포가 고르지를 못한것이다. 名目이 많은 10월중에 국군의날(1일) 개천절(3일) 한글날(9일) 문화의 날(20일) 경찰의날(21일) 유엔데이(24일)가 겹치는것과는 대조적이다. ▼탁상달력을 펼쳐보아도 11월치는 꽤나쓸쓸하다. 육림의날(7일) 수출의 날(30일)을 빼고는 색깔다른 글씨가 입동(7일)과 소설(22일)두 절기뿐이다. 잔치다운 잔치, 행사다운 행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 코리아·타임스를 읽다, 11월중에「즐거운 날」이 하루 들어 있음을 발견했다. 바로 내일 21일이 9번째 맞는 세계 헬로·데이라는 것이다. ▼「헬로」는 중학생이라도 알만한 영어의 인사말이다. 영한사전에는「여보」「이봐」「(전화의)여보세요」「안녕하세요」라 하고「가벼운 인사」란 주석이 붙어있다. 그러니 굳이 번역하자면 헬로·데이는 인사의 날「이날만은 서로 인사라도 주고받자는 얘기다. 이날의 행사도, 인사를 하는 것, 사람 10명에게「안녕하세요」인사를 한다는 것. 73년 미국 하버드대학에 재학중이던 브라이언과 마이클·매코맥 형제가 착상한 것이라고 한다. 매코맥 형제의 생각은 인사를 주고받음으로써「사람들이 서로의사를 소통할수있다는 사실과 평화를 함께 할수가있다는희망을 전파하리란 것이었다. ▼첫해 7개국에서 1천3백60통의 편지를 받은 운동은 여러나라 원수와 대중매체에 발송했다. 첫번 헬로·데이에는 15개국에서 반응이 있었다. ▼해가 거듭할수록 반향은 더욱 커졌다. 매코맥 형제는 79년 40개국어로된편지 4천통을 냈다. 그반향으로 전세계 1백3개국에서 운동에 참여했다는 회답편지가 왔다. 작년에는「미국의소리」방송과 영국의 BBC전파가 운동의 폭을 더욱 넓혔다. 금년도 9번째 헬로·데이를 앞두고 코리아·타임스에 보내온 매코맥형제의 편지는, 지금까지 전세계 55개국의 원수가 이운동취지에 찬성하는 답장을 보내왔다고 밝히고 있다. ▼매코맥 형제의 착상은 기발하다면, 기발하다. 그러나 헬로가 펴려는 취지는 십분 공감을 부른다. 본디 인삿말 수가 적은 우리 사회이기에「안녕하세요」한마디 인사의 아쉬움이 큰 것이다. 매코맥형제의 일깨움이 아니더라도 오가다 주고 받는「안녕하세요」의 다정함을 모를 사람은 없다. 그것이 쑥스럽다면 우리 생활감정에맞게, 目禮라도 했으면 한다. 그런 마음가짐만으로도 이 사회가 한결 밝아질 것은 틀림 없는 일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염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531—0277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의 친척들중 카나다에 오시길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당신과 당신가족을 방문케 해서 모셔오십시오. 동시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게 하십시요.
1976년 이후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공부했읍니다.
보다 소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전화하십시요.
Canadian Language Institute
728 Bay St. Toronto, Ontario
M9G 1N5 ☎ : 598—0451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 각종국수 전문 —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 : 532—0602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입)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서울식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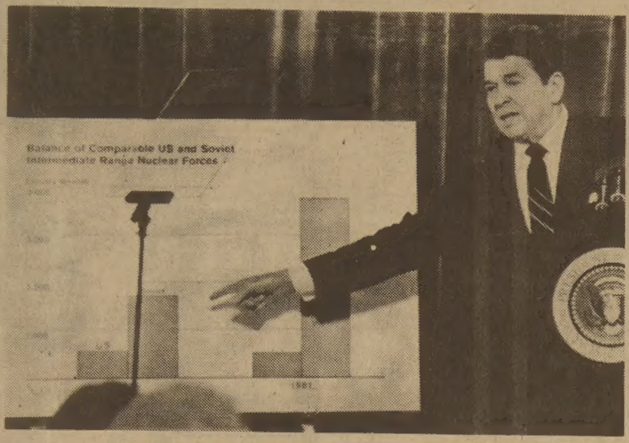
Dear Mailperson :

Hi !
THE KOREA TIMES is a daily newspaper. I'm supposed to receive this newspaper every day.
Your co-operation will be much appreciated.
Thank you.
Mr/Mrs ○○○

◇이 편지를 우편함에 붙이십시오.

蘇서 中距離미사일 撤去땐 美、크루즈·퍼싱Ⅱ配置취소

레이건會見 對蘇 4個項 새軍縮案 제시



◇對蘇軍縮제의 연설하는 레이건 레이건 美대통령이 18일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에서 對蘇포괄군축을 제의하면서 도표를 가리키고있다。【워싱턴18日AP電送=聯合】

核·在來무기 減縮하자 「核戰爭공포」除去 촉구

브레즈네프에 親書보내

【워싱턴18日UPI·AP=聯合】레이건美 대통령은 18일 소련에 대해 유럽과 전세계지역에 배치된 핵무기와 재래식무기의 대폭감축등 4개項새 군축안을 제시하고 소련이 이를 수락하여 『인류를위한 巨步』를 내디딜것을촉구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상오10시(한국시간 19일0時) 미국과 유럽에 생방송으로중계된가운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행한 첫주요외교정책 연설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군축안을 소련공산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에게 보냈다고 밝히고 『간결하고 솔직하면서도 역사적인 내용이 담긴』 자신의 제의를 소련이 수락할경우 핵전쟁의 위협은 크게감소할것이라고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날 밝힌 4개항의 對蘇제안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오는30일 열리는 제네바군축협상에서 소련이 SS20、SS4、SS5등중거리核미사일을 철거할 경우 퍼싱Ⅱ및 크루즈미사일 5백72基의 유럽배치계획을 취소할것을 제안한다。

▲가능한한 내년중에 美蘇쌍방의 전략무기의 실질적감축을 위한 새로운 협상을 개시한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재래식무기를 보다 낮은 수준에서 평형화시킬 용의가있다。

▲일방의 오판에의한 기습공격의위협을 줄이기위한 새로운 회의를 개최하자。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의 이러한 모든제의가 ▲군사력의 실질적이고도 대폭적인 감축과 ▲유사한 무기에대한 평등한 보유한도 설정 ▲확인을 위한 적절한규정등 공정한기반위에서 마련된것이라고 지적하고 美정부와 자신은 이같은 원칙을토대로 군축협정을 성취할책임을 지고있다고 말했다。

"유럽核완전除去 宣傳불과"

蘇、"숫자놀음"레이건提案 명백히拒否

【모스크바18日UPI、외신=聯合】소련은 18일 유럽에 배치된 중거리核미사일의 완전제거를 요구한 레이건美대통령의 제안이 미국의 군사적우위를 확보하기위한『선전에 불과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제안을 명백히 거부했다。

世界平和기여 일제히환영

레이건對蘇제의 西方의반응

【뉴욕18日UPI=聯合】영국·서독및 일본을 비롯한 서방진영은 18일 유럽배치핵미사일을 완전 제거하자는 이른바「0의 선택」을포함한 레이건美 대통령의 對蘇평화제의가세계평화를향한역사적제의라고일제히환영을표시했다。

소련관영 타스통신은 이날 레이건美대통령이 이른바「0의선택」을 제안한 유럽에서의 주요외교정책을밝힌지 불과 몇시간만에 미국의 제안이 양국간의 군축협상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비난했다。

폴란드政府·勞組 10시간협상

4個공동協商團구성

經濟정책·言論매체 이용등

【바르샤바18日AP、AFP=聯合】폴란드정부는 18일 자유노조측과 10시간에 걸친 협상끝에 국내경제위기와 자유노조의 언론이용요구등 주요문제에관해 4개공동협상단을 구성、계속 협의키로 합의함으로써、보이체흐·야루젤스키공산당제1서기겸 수상이 제창한 거국화해정책구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자유노조대변인 마레크·브로돈은 이날 협상이 『회담에관한 회담』이었으나 『성실하고 이해깊은 분위기속에 진행되었으며 현저한 견해차이는 없었다』면서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표명했다。

정부·노조간 합의에 따라 앞으로 공동협상단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갖게될 분야는 ①국내경제조정및 광범위한 경제개혁②당면한 올겨울 越冬대책③자유노조의 언론매체이용④지방분규해결방안등이 포함돼 있다。

亞·太주둔 美軍事力 강화

롱提督 태평양軍事세미나 演說

【마닐라18日UPI=聯合】美태평양군총사령관 로버트·롱 제독은 18일 美國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대한 소련의 꾸준한 팽창주의야욕을 분쇄하기위해 이지역주둔 美군사력을 강화하고있으며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미국에 새로이최신형F16전투기와 A10근접공중지원機를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롱제독은 이날 18개국軍지휘관들이 참석한가운데 마닐라에서 열린 제5차 태평양군사세미나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오늘날 폭격기·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적재잠수함등으로 형성된 미국의 核우산은 核전쟁을 억제하고있을뿐 아니라 세계군사력경쟁에서 소련의 세력증대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北傀 군사使節團 모잠비크에 도착

【리스본18日外信=聯合】北傀인민무력副相 朴학림이 이끄는 군사사절단이 지난10일 모잠비크에 도착、모잠비크軍과 고위군사회담을 가졌다고 모잠비크의 AIM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北傀군사사절단이 17일에는 사모라·마첼대통령을 예방했다고 말했다。

北傀군사고문단들은 현재 모잠비크와 긴밀한 정치협력관계에 있는 이웃 짐바브웨軍을 훈련시키고 있다。

메아리

不親切 버스

지금 대중교통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도시형버스다。이 버스는 선진국의 원맨(one man) 버스를 모방한것이라고 할수있다。

원맨 버스는 운전사가 홀로 운행한다。손님은 앞문으로 타고 가운데 문으로 내리며 요금을 낸다。차장도 없고 문이 열렸어도 그리로 타려는 사람 또한 없다。우리 도시형버스는 원맨 버스의 얼치기 같은 존재다。안내양이 가운데 문에서 요금을 받고 손님은 서슴없이 이 문으로 차에 오른다。

본래 의도는 차내 혼잡을 막기 위해 앞문으로 타고 가운데로 내린다는것이었는데 이런 규칙과 약속은 오간데가 없이 되었다。운수관계자나 시민이나 규칙에 너무 등한한것 같다。규칙준수를 등한시하는 우리 교통수단은 서비스不在와 난폭운행이라는 고질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한다。

서울시내 교통인구의 70% 이상을 시내버스가 실어 나른다。나머지 20%를 택시、그리고 지하철과 승용차가 수송을 맡고 있다。버스의 비중이 대단한 만큼 승객의 불만도 크다。대중교통의 고질화 현상이 얼마나깊은가는 몇몇 조사를 보면 당장 알수 있다。79년말 서울시와 감사원은 운행질서를 조사했다。이때 적발된 차량의 37%가 대각선정차、차선위반、승차급유를 하여 불평을 샀다。

지방도시의 버스도 마찬가지다。80년말 인천시가 집계한 시민고발과 반상회 건의에서 드러난것도 역시 불친절과 운전난폭이었다。

지난 1년동안 교통부에 설치된 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불만의 집계」도 이런 고질병이 여전함을 알려준다。

시내버스에대해「토큰시민」들의 원성이 집중되었다。신고안된「침묵의 불편」도 더 많으리라 생각된다。

이에대해 운전기사나 안내양들은「逆의 불만」이 있을것이다。무리한 운행배차시간이 과속등의 무리를 저지르게 한다는 의견도있다。

승차질서를 안지키는 손님들의 거친 태도는 과로한 안내양들의 짜증을 산다。

서비스업이란 결국 친절을 파는 장사란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얌전한 운전、상냥한 안내、그리고 승객의 질서의식、이것이 생활화 될때 우리의 거리는 한층 명랑해 질 것이다。

퍼싱Ⅱ、命中度 SS20능가

美·蘇 미사일諸元·配置현황

【런던18日外信=綜合】오는30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美蘇軍縮협상에서는 유럽大都市들을 파괴시킬수 있는 新型中距離 핵미사일의 감축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될예정이다。

현재 美蘇쌍방에 의해 모두 커다란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 미사일들은 인구조밀한 西歐를 주요 공격목표로 삼고 있어 制限核戰에대한 우려를야기시키고있다。

레이건 행정부와 모스크바당국간의 첫 軍縮協商인 이번 제네바협상은 유럽에 이미 배치됐거나 앞으로 배치될 계획인 射程거리 1천㎞이상의 美蘇양국미사일 감축문제에 집중될 예정인데 이 미사일들의 諸元및 配置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크루즈、레이다網피해 飛行 SS20、83년 西歐배치예정

●美製미사일

▲퍼싱Ⅱ(開發中)=射程거리 1천3백㎞、速度 초음속、全長 10m 同體에 레이다를 부착하고 있어 정확도가 매우 높은 미사일로서 명중도가 蘇製SS20보다 10~11배 정확한것으로 알려졌다。單一핵탄두를 장착、83년 배치예정。

▲크루즈(GLCMS)(開發중)=射程거리2천4백㎞、速度는시속8백㎞、全長6m。速度는 느리지만 地上에서불과 15m떨어진 低空비행을함으로써敵의레이다망을 벗어날수있다는장점을갖고있다。單一핵탄두 장착。퍼싱Ⅱ미사일과마찬가지로 오는83년유럽에배치될예정。

●蘇製미사일

▲SS20(지난 77년에 實戰배치되기시작)=射程거리 5천6백㎞、速度초음속、全長11m、彈道미사일로서 個別목표로향해 발사되는 3개 핵탄두를 장착。

▲SS5(지난 61년에 實戰배치)=射程거리3천5백㎞、速度초음속、全長24m、彈道미사일로서單一핵탄두장착

▲SS4(지난 59년에 實戰배치)=射程1천7백70㎞、速度 마하6·7、全長23m、彈道미사일로서 재래식 또는 핵탄두를 장착。

◇美·蘇미사일 발사대에 올려진 美軍의전술무기 렌스미사일㊧과 퍼싱Ⅱ미사일㊨및 地上發射크루즈 미사일(GLCMS)의모습。사진㊦은 蘇SS5 미사일。【뉴욕18일AP電送=聯合】

「제로·옵션」…對蘇 先制카드

레이건대통령 西歐軍縮제의 背景

國際焦點

美、나토 政治결의에 懷疑

蘇선"宣傳전쟁놀이"非難

유럽反核물결 鎭靜…蘇거부땐 군비增強명분도

【워싱턴19日=曹洋煥특파원】레이건美 대통령은 취임이래 국내정치에 중점을 두었다。미국경제회복에 온힘을 쏟아왔다。

레이건이 역점을둔 국내정치는 선거공약으로 집약된「감세·84년까지의 균형예산·군사력증강」에 바탕을 두었다。경제를 회복하여 그 결 토대로 군사력을 증강해 나가면 미국은 對蘇대결에서 우위를 확보할수 있다고 레이건은 보았다。

브레즈네프의 서독 방문(22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레이건이 소련은 유럽을 겨냥、배치한 중거리 핵미사일을 해체 하고 미국은 나토(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가져 가기로 한 핵중거리 미사일을 배치 하지 않기로 18일 제안한 이른바「제로·옵션(零의 수준 선택)」은 다분히 유럽 여론에 영향받은 것이며 또 그걸 중시한것이었다。

제로·옵션은 먼저 서독의 슈미트수상이 들고나온 것이며 레이건은 애초에 이 슈미트안을 탐탁지않게 생각했다。

소련의 新SS20전역핵미사일 배치로 유럽에서 군사우위를 차지하게되어 이를바로잡기위해서는 83년하반기까지 5백72기의 퍼싱Ⅱ미사일을 나토합의에따라 배치해야하는데 제로·옵션은 나토국가들의 정치결의에 회의를 느끼게하는것으로 미국은 보았다。

하지만 反核시위로 유럽동맹국들의 정치결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이걸 바로잡는것이 미국이 더 시급한 일이 돼 버렸다。

소련이 레이건제안을 두고「선전전쟁놀이」로 비난하고 일단거부한 것은 레이건제안이 실질적인 소련과의전역핵감축협상에 뜻을 두었다기보다 유럽여론에 더신경을 쓴것에 초점을맞춘 것이다。

레이건은 美동부표준시간으로 18일아침10시(한국시간19일0시)에 연설을 한것은 유럽의 저녁TV시간에맞춘것이며 유럽7개국에의 동시 생방송비용은 대부분미국이부담하는 것이라 한다。

소련은 배치한 SS20미사일로 유럽에 핵균형이이뤄진 것으로 선전하는데 제로·옵션은 SS20을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다만 브레즈네프는 소련에 호의적인 유럽의 평화주의를 부채질하려는 효과를 노려 지난여름 푸트영국노동당지도자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을때 퍼싱Ⅱ와 크루즈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지않으면 SS20미사일배치를 감축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바있다。

오는 11월30일 제네바에서 미소 유럽전역핵감축협상이 열리는데 미국이 이에앞서 협상기본카드를 미리 내보인 것도 이례적인 것이다。

「선전놀이」는 소련의 비난을 받을 측면이다。

미국민주당지도자들은 레이건제안의 국내소화효과면을 충분히들여다보면서도 소련과의 군축협상을 시작하려는진정한 평화제의로 레이건이 올바른방향을 잡은것으로 평가했다。

소련이 레이건제안을 협상카드로 상대하지않고 끝끝내 거부하면 레이건의 군비증강책이 설땅을 넓히게된다。

소련이 이를모를리가없다。

소련은 레이건의 제로·옵션에 SS20미사일의 일부만 철수한다든가 또는 미사일만의 감축을 협의할것이아니라 소련의 열세에 놓여있는 핵운반수단이되는 전폭기와 나토국이 보유하는 核軍도 협상대상으로 하자고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미군사전문가들은 본다。

이럴경우 유럽전역핵협상은 끝없는 입씨름으로 빠져들 것이다。

레이건의 제안은 對蘇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협상자체를 수정하여 美蘇간의 협상시작에 문을 여는데 의의가 있다。

낸시、會見후 感謝서한 보내

日記者에、질문엔 텔렉스로 應答

【東京18日UPI=聯合】레이건미대통령의 부인 낸시여사는 자신과 회견한 일본『주부의 벗』지 기자들의 질문에 텔렉스로 응답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또 낸시여사가 이들과의 회견에 응한지 4개월후인 5월27일 백악관 편지지를 사용、자신과 회견한『주부의벗』지의 한간부기자 기모또·요시꼬씨와 프리랜스기자 가미사까·후유꼬씨등 2명에게 2통의 감사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낸시여사는 리처드·앨런 백악관국가안보담당보좌관이 이들 일본기자들로부터 사례금조로 1천달러를 받은것이 논란의 대상이 된후 자신은 이들기자들과 만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것으로 보도됐었다。

『주부의 벗』지의 편집장 다까모리·쓰기오씨는 이날 共同통신과의 단독회견에서 同잡지사기자 2명과 통역 1명이 지난1월 백악관에서 낸시여사와 인터뷰했으며 이에앞서 질문서가 미리 제출됐었다고 밝히고『낸시여사는 이 질문서에 대해서는 인터뷰후 텔렉스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낸시여사가 이들 잡지사기자에게보낸 감사편지한통을 공개했는데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백악관편지지에 쓰여진 이 편지는『다까세여사와 가미사까양을 백악관에서 맞이한것은 특별한 즐거움이었읍니다。당신들은 우리들의 첫손님들 가운데 포함됩니다』고 쓰여있었으며 이밖에 이들 기자들이 선물한 手製편지함에 대한 감사의 뜻도 실고있었다。

낸시여사의 감사편지를 공개한 가미사까양은 앨런보좌관이 자신에게 사례금으로 받은 1천달러를 자선사업에기부할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앨런스캔들"괜찮다"

레이건、調査결과보고받아

【워싱턴18日=聯合】레이건미국 대통령은 18일 리처드·앨런안보담당보좌관의 1천달러 사례금수수사건 수사결과『모든것이 괜찮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의「로즈가든」에서 있은 한기념식후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이같이 말하면서 그러나 앨런 보좌관의 결백이 밝혀졌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海外話題

수컷精子없이 복제생쥐

英·스위스 遺傳공학자

受精안된 卵子核분열 어른個體로 生殖성공

【東京19日=宋孝彬특파원】영국과 스위스의 유전공학자가 수컷정자없이 처녀생식으로 복제생쥐를 키우는데 성공했다。

영국과학전문誌인 뉴·사이언티스트 11월5일자는 受精되지않은 생쥐의 성숙한난자핵을 가지고 분열시켜 어른개체로 키우는 처녀생식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하고 이것은 복제인간의 탄생가능성에 한걸음 다가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획기적인 실험은 스위스제네바대학 칼·이르멘제박사와 미국 잭슨연구소의 호베박사가 공동으로 이룬 것이다。

이제까지의 처녀생식은 여왕벌이나 우뭇가사리동에서는 가능했으나포유동물로서는처음이다。

이연구팀은 사람의 머리카락만한 시험관을 사용해 암놈의 생쥐A로부터 성숙한 난핵을 추출、배양하고 B생쥐로부터 受精한지 얼마안되어 合體가 되지않은 난핵과 정핵을 떼어내어 여기에다 먼저 A로부터 추출한 난핵을 이식했다。

이렇게 이식배양한 것을 C라는 代理母생쥐의 자궁에넣어 발육시켜 수놈생쥐의 유전인자가들어있지않는 순전히 어머니의 유전인자만 가진 생쥐를 탄생케했다는 것이다。

亡命 체코兵士 來週 離韓할듯

【서울18日UPI=聯合】지난10월 비무장지대를 넘어 자유진영으로 망명해온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시위원단소속 체코슬로바키아사병 로베르트·오르스자그(20)가 아마도 미국에 재정착하기위해 내주 서울을 떠날것으로 예상된다고 외교소식통들이 18일 밝혔다。

한 소식통은 그가 미국에 가기앞서 먼저 유엔난민문제고등판무관이 운영하는 난민중계소가있는 이탈리아의로마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油價 引下제의 배럴당 36弗로

리비아서

【뉴욕18日AP=聯合】리비아는 최근 자국내에서 활동중인 3개 미국석유회사들에 대해 자국산 원유판매값을 배럴당 평균 1달러 인하할것을 제의했다고 뉴욕의 정통한 소식통들이 18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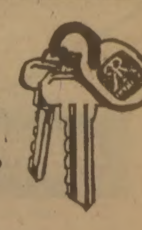
리비아의 이같은 제의는 리비아에서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코노코、마라톤석유、아메라다·헤스석유등 3개 미국석유회사들에 대한 원유판매값을 배럴당 평균37달러에서 36달러로 인하하는것을 의미한다。

리비아의 이같은 유가인하제의는 미국의 엑슨석유회사가 지난주 리비아로부터 철수하고 모빌석유회사도 현재 이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중인 것과 때를 같이하여 나온 것이다。

SAI WOO레스토랑
(西湖酒樓)
SAI WOO
「1954년에 설립된 토론토의 가장 훌륭한 중국음식점」
온갖 중국음식을 제공 합니다.
— BUSINESS MEN'S점심
— 파티및 연회환영
— TAKE OUT써비스
— 가족 저녁식사 제공
월~토 : 11 : 30~ 2 : 00
일요일 : 11 : 30 ~1 : 00
130 DUNDAS ST. W.
(던다스×베이)
☎ : 977-4988~9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틀,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신 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영업시간
9 : 30~6 : 00 월, 화, 수, 토
9 : 30~9 : 00 목, 금
202 SPADINA AVE.
☎ : 363-6077 MRS. PARK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각종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 시 성
(B)497-0600
(R)298-8558
D.F.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우유 겨울철 保管방심 冷藏안되면 變質

4일간 5度이하유지를 종이 병우유

구멍가게등선 난로옆에 마구진열

올부터 메이커電氣보조비끊어 더심해

가게에서 우유를 사마실때는 보관상태와 제조일자를 확인해야한다. 특히 겨울철이라고 냉장고에 보관하지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방심」 때문에 우유는 여름철 보다 겨울이 더 변질위험이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우유용기의 종류에따라 보관방법과 유효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자세히 알지못하고 사마셔 설사와 구토등을 일으키는가 하면 알르레기 체질을 가진사람은 온몸에 반점까지 생기는등 식중독 증세까지 일으킨다.

겨울철을맞은 각 소매상에서의 우유판매실태를보면 섭씨5도이하에서 냉장보관돼야하는 종이나 병포장우유가 양지바른 진열장에 멋대로쌓여 있는가하면 우유를 난로가에 쌓아두고파는 가게까지 있는 실정이다.

◇겨울인데 어떠랴 냉장고 밖에서 아무렇게나쌓여 소홀이 판매되고있는 각종우유제품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날씨가 추워지자 상당수 가게가 냉장고를 가동시키지 않고있으며 그나마 가동중인 냉장고는 온통 아이스크림으로 가득차있을 뿐이다.

식품공학전문가들은 일반 가정에서도 우유보관에 소홀하기쉬운 겨울철은 더욱신경을 써야 할 계절이라고 말하고 변질된 우유를 마실 경우 설사, 구토등의 증세와 아울러 심할때는 목숨을 잃기까지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구멍가게를 포함한 서울시내 소매상들의 우유와 우유제품 보관상태는 비위생적이기 짝이 없다.

서울 城北區 三仙洞 4街 D식품점에는 30여개의 우유가 유리진열장속에 진열돼 팔리고 있다. 양지바른곳에 쌓여있는 우유들은 대부분이 제조일로부터 2~3일이 지난것.

4평정도 크기의 가게에는 복기까지 겸하면서 연탄난로도 피우고 있는 이가게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온몸이 후끈 달아오를 정도였다.

그러나 가게주인은 종이포장과 병포장 우유는 나흘안에는 마셔도 이상이 없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정도로 우유보관에 관심이 없었다.

국민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서울 道峰區牛耳洞 牛耳국교앞 O상회는 포근한 겨울날씨에 우유를 말리기라도 하듯 가게앞에 내놓고 팔고 있었다.

종이포장 우유를 들고 제조일자를 따지자 주인은 요즘 나오는 우유는 제조된지 한달이 지나도 변질이 되지 않도록 포장이 돼 있다고 보관방법도 잘 모른채 우겨댔다.

그러나 이우유는 종이포장 우유로 포장겉에는 분명히 『섭씨5도 이하에서 냉장요 4일간 유효』라고 인쇄돼있었다.

주택가인 서울麻浦區 孔德洞 B식품점도 우유제품을냉장고밖에 두고 팔고있기는마찬가지.

가게주인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유제조메이커에서 전기료를 월5천원씩 보조해주었으나 금년부터는 이보조마저 끊겨 우유만 팔아서는 냉장고 전기료도 감당할수 없어 가동할수없다고 말했다.

서울江西區 禾谷2洞 Y상회의 경우도 냉장고는 아이스크림류만 가득든채 우유는 호빵찜통옆에 쌓아두고있다.

서울鍾路區 寬勳洞의 한구멍가게는 난로가에 놓인 냉장고속에다 우유를 보관해두고 팔면서 오히려 『겨울철에는 냉장고에든 우유를 찾느냐』고 역정을 부리기도했다.

서울道峰區雙門洞의 한 우유보급소장은 『겨울에도 각 소매상에 대해 우유를 냉장고에 넣어 팔라』고 지도를 하고있으나 비수기라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대부분의 소매상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또 한국유가공협회 상무 南龍씨(47)는 『우유보관방법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마찬가지로 보관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하고 『종이포장, 비닐포장, 병포장우유는 특히 보관상의 유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판되고있는 각 메이커의 우유의 용기를 유효기간별로 분류하면 스웨덴특허용기인 테트라·팩을 사용한것이 실온(섭씨20도내외)에서 제조일로부터 6주또는 4개월까지 유효하지만 그밖의 종이 병또는 비닐포장에는 우유는 섭씨5도이하의 냉장으로 보관해도 제조일로부터 4일간만유효, 테트라·팩용기를 사용하지않은 일부유명메이커의우유와 각지방에서 소량으로 생산판매하는 우유는 소비자들이 한상보관상태와 유효기일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淑大 식품영양학과장 金環鎬교수(57)는 『테트라·팩포장이아닌 우유제품의경우 섭씨5도이하에서 보관해야 우유가 변질되지않고 신선한맛을 내지만 실온인 20도정도에서 보관될경우 5~6시간만 지나도 변질되기 시작한다』면서 흔히 소매상들에서 겨울철이라고 냉장고밖에 우유를 내놓고 파는 행위는 위험천만이라』고 경고했다. 【朴珍利기자】

漢醫大에 아리송한 巨額기부금

慶熙大 "博士코스 30명에 8천만원"

뒤늦게말썽나자 始末書받고 돈 모두돌려줘

"醫學硏설립"취지 卒業生2명 千만원내기도

慶熙大 한의과대학 교수가 연구소를 설립한다며 당국에 신고없이 한의학과 졸업생들로부터 8천여만원을 모금했다가 박사과정과 관련이있는게 아니냐는 말썽이나자 이를 되돌려주는 소동을 벌였다.

慶熙大 한의대 한의학과장 文모교수와 한방병원장 李모교수는 지난해 2월부터 「慶熙동양의학연구소」를 설립한다며 堤川에서 한의원을 경영하는 安모씨(45)와 忠州의 孫모씨(43)등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씩을 기부받는등 30명으로부터 지난 10월4일까지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모두 8천여만원을 모금했다는 것.

학교측은 이 모금이 말썽이 되자 『교수들이 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정관마련등 학교측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면서 시말서를 받는 한편 기부금을 되돌려 주게 했다.

이 「모금시비」는 지난 10월29일 B전문지에 「慶熙大 한의과대학이 박사학위 코스에 있는 학생들로부터 연구소설립기금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기부금을 낸 사람가운데는 1천만원을 낸 安씨와孫씨등 2명이 지난해 9월10일 박사학위를받은것으로 밝혀졌으며 나머지사람중에는 박사학위소유자가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기부동기가 박사학위와 관련된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 文교수는 『최근 양·한방의료일원화, 침구사법제정등 복잡한 상황에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절차상의 문제는 제쳐놓고 일차로 경비를 모은후 학교측에 상의하기로 했었다』고 주장했다.

또 李교수는 『처음 계획했던 기금 1억원이 모아지면 학교를 떠나서라도 연구소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李교수는 8천여만원이 모금되자 지난10월4일 서울鍾路區明倫洞 趙永植이사장집을 찾아가 연구소 설립에대한 취지를 알렸다고 주장하고있고 趙이사장은 이틀날인 10월5일 安致烈慶熙大총장등이 참석한 慶熙의료원 개원10주년 기념식에서 연구소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기금이 모아졌다며 치사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친구와 술마신뒤 배찔린채 숨져

18일 밤11시30분께 서울冠岳區奉天10洞 463 국민은행 冠岳지점 앞길에서 姜聲云씨(27·편직공·서울冠岳區奉天5洞山101)가 오른쪽 아랫배를 예리한 흉기에 찔린채 숨져있는 것을 근처 포장마차집주인 유영희씨(44·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유씨에 의하면 숨진姜씨는 이날 하오10시께 친구와함께 포장마차집에 들어와 4홉들이 소주한병을 나누어 마신뒤 이날하오 11시10분께 나갔는데 철시하려고 밖으로 나가보니 10여m 떨어진 곳에 姜씨가 오른쪽으로 쓰러져있었다는것.

경찰은 姜씨와 함께술을마신 동료 金모씨(27)를 수배했다.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高速버스 4路線폐지

부산~金泉·大邱~麗水·大田~木浦간등

교통부는 19일 승객이용률이 적은 부산~金泉, 부산~大邱, 부산~麗水, 大田~木浦간의 4개 고속버스노선을 내년2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서울~堤川, 부산~順天, 大邱~大田, 大邱~順天간의 4개노선은 1~4회씩 감축 운행토록했다.

교통부는 이들 폐지대상 고속버스노선이 하루 4~5회씩 운행돼왔으나 승객이용률이 20%이내로 적어 고속버스회사측의 요청으로 없애기로 한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또 승객이용률이 늘어난 서울~錦城간의 고속버스노선을 신설하고 서울~馬山간등 17개노선의 운행횟수를 최고 10회까지 증회 운행토록했다.

뮤지컬 春香傳 한국公演

日배역진 42명 어제來韓

뮤지컬 春香傳을 한국에서 공연할 日本 호리호크·아카데미극단 배역진 일행 42명(사진)이 19일낮 12시40분 대한항공편으로 金浦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날 공항에 도착한 春香역의 요시모또·마유미양(吉本眞由美)등 배역진들은 『춘향의 본고장인 한국에서 공연을 갖게 돼 더욱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오는 21·22일 이틀간 중앙일보사 공연장에서 일본인들이 일본말로 공연할 뮤지컬 춘향전은 한국과 일본간의 문화교류에 큰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同業미끼… 6억詐取

2명令狀 手票빌리고 땅까지저당 豪華생활

【釜山=聯】부산 北部경찰서는 19일 동업을하자고 피어음·부동산등 6억원상당을 가로챈 한국동해공업주식회사 대표 하광호씨(38)와 동사 이사 이황윤씨(31)등 2명을 배임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영도내화공업사 대표 주경우씨(28·西區桃李洞733)에게 부실기업으로 넘어간 동해공업을 인수하면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주씨로부터 액면 1억8천만원의 당좌수표를 빌어 회사운영자금으로 인수한뒤 釜山市소재 주씨 소유의 대지 4천평(싯가 4억원)을 담보로 中區中央洞 신용보증기금 중앙지점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것을비롯, 가불금형식으로 회사돈을 빼돌리는등 모두 6억원을 사취했다는 것. 이들은 이같은방법으로 빼돌린 돈으로 고급아파트와 자가용을 구입해 호화생활을 하는 바람에 회사는 도산지경에 놓였다.

히로뽕 16억臺密造…반출

代金으로 金塊밀수

總責등 셋拘束

【順天=聯】光州지검 順天지청 李根宇검사는 19일 히로뽕 16·5kg을 제조해 日本에 밀반출한뒤 그대금으로 금괴를 밀수한 히로뽕밀조단 총책 朴喜周씨(36·전남麗水市鳳山洞216의6)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李宇慶씨(38·釜山)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4일 부산모처에서 제조책 李씨가 만든 히로뽕 4·5kg을 운반책인 金泰亨씨(47·부산시中區富平洞4가7) 가麗水로 운반해온것을 朴씨소유의대일활선어수출선제1삼정호(53톤)에 싣고 5일 麗水항을 출항, 日本시모노끼(下關)에 사는 교포 尹모씨(50)에게 넘겨주고 받은 대금 4억5천만원으로 3.25kg짜리 금괴10개(시가 3억6천4백만원)를 밀수입해 왔다는것.

픽업바다에 다이빙

【釜山=聯】통금을 넘긴 피업차가 검문을피해 달아나다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부산影島다리아래 바다로떨어졌다.

19일 0시5분께 부산影島區影島경찰서쪽 영도다리입구에서 부산7라 5454호 픽업차(운전사 鄭순필·27)가 시내에서 影島쪽으로 과속으로 달려가다 영도경찰서앞에 설치된 검문용 바리케이드를 발견하고 40여m 전방에서 차를돌려 다시 시내쪽으로 도망치기위해 좌회전 하는순간 운전부주의로 影島다리 난간을 부수고 20m아래 바다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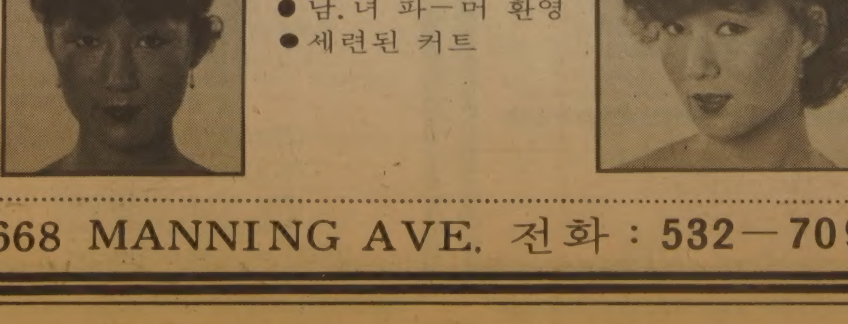
경찰은 이날상오 기중기를 동원, 바다속에서 픽업차를 인양했는데 운전사鄭씨는 차속에서 빠져나오지못해 익사해있었다.

◇통금에쫓겨 부산影島다리 입구 검문소 바리케이드를피해 도망치다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바다에빠진 픽업차가 인양되고있다.

Kim's 미용실

새로운 스타일의 민감한 컷트와 파마 전문

금번 저희 미용실 내부를 확장 수리하여 교민께 더욱 봉사코자 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신부화장전문
● 드레스 대여
● 남.녀 파-머 환영
● 세련된 커트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

신용과 당신

기본 사실들은 무료

모든 소비자들을 신용으로 구입하는데 대해서의 즉, 어떻게 신용을 얻고, 사용하고, 또한 좋은 신용의 경력을 유지하느냐 하는 기본적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신용이 거절될 경우, 또는 카운셀링이 필해한 경우 당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중요한 생각 해볼 것들은,
결혼— 어떻게 결혼이 당신을 평가함에 영향을 미치느냐? 당신의 기록— 당신은 다시 관찰하고,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법— 당신의 권리및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 무료책자 "신용과 당신에 대한 사실"에 담겨져 있읍니다.
이 사본을 얻으시려면 다음으로 편지하십시요.
"Credit and You", Consumer Information Centre, 555 Yonge St., Toronto, Ont., M7A 2H6, 또는 전화 : (416) 963-1111. 무료 장거리 전화도 허용합니다.

이 름 :
주 소 :
도 시 :
주 : 코드 :

Ministry of Consumer and Commercial Relations
Ontario
고드 워커 장관
윌리암 데이비스 수상
온타리오 정부 - 주민을 돕고 일하는

金喆鎬 마루야마에 TKO勝

WBC슈퍼플라이 눈언저리 集中打로 9회에

내년1월 日이시이와 4次戰

【釜山=金在契기자】프로복싱 WBC슈퍼 플라이급챔피언 金喆鎬(20)는 18일밤이곳 九德체육관 특설링서 벌어진 타이틀 3차 방어전서 日本의 도전자 자칼·마루야마(27·丸山·동급WBC9위)를 난타, 9회 1분12초만에 TKO로 이겼다。

3차방어전의 벽을 넘은 金은 내년1월12일 大邱에서 日本의 혼혈복서 이시이·고끼(石井幸喜)현WBC플라이급 7위와 타이틀 4차방어전을 벌일예정이며 여기서 이기면 2월하순 또는 3월초에 강호 라파엘·오로노와 지명방어전을 갖게된다。

오른쪽눈언저리가 퉁퉁 부어올라 완전히 시야가 가린 마루야마는 불굴의투지로 8회를 넘겼으나 9회에접어들자 챔피언 金은 마루야마의 상처부위를 집중 가격했으며 마루야마는 왼쪽눈언저리에 열상을 입고 피를 흘리기 시작,경기를할수없는 상태가되어 TKO로 패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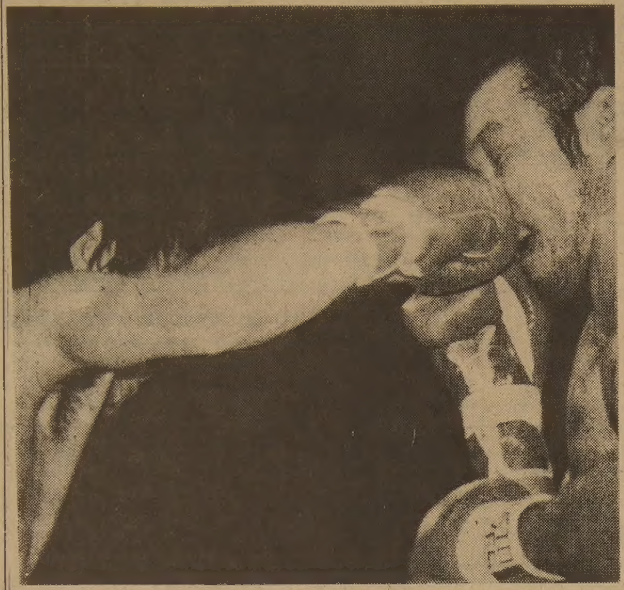
金은 초반 3회까지는 마루야마의 저돌적인 인파이팅에 밀려 고전했으나 4회에서 깨끗한 스트레이트 펀치를 터뜨리면서 비로소 페이스를 찾기 시작,중반 라운드에 접어들어 전세를 뒤집었다。

金이 마루야마의 왼쪽잽을 계속맞자 洪秀煥트레이너는 『붙어야 돼。떨어지면 자꾸 맞는다』고 큰소리를 질렀으며 이지시를 받은 金은 7회부터 마루야마의 어깨안으로 파고들어거리를 주지않았다。마루야마는 라이트 결정타를 노리며 거세게 밀어붙이다가 7회에서 4~5개의 짧은연타를 터에맞고 코피까지 쏟아져 열세에빠졌으며 기세가 급격히 떨어진데다가 눈언저리 부상이 악화,무릎을 꿇고 말았다。

8회까지 채점결과를보면 리처드·스틸부심(美國)80-72,金光壽부심(한국)78-75,구와다부심(桑田·日本)80-77로 3명모두 金의우세였다。초반한때아슬아슬한장면이 많았으나 늦게발동이걸리는金은 중반부터 짧은스트레이트로 마루야마를 서서히 무너뜨렸다。근래의 타이틀전으로서는 박진감넘치는 한판이었다。

이날 계체량에서 金은52kg을,마루야마는 52.1kg을 나타냈고 金은 마루야마를물리침으로써 18승(8KO)1무1패의 전적을 기록했다。

타이틀매치가 벌어진 경기장에는 이대전의 주최측(韓進프로모션)에서 비싼 입장료(링 사이드3만원·일반석7천원)를 매겨 예상보다는 적은3천여관중이 입장했을 뿐이다。



◇顔面에 強打 8회에서 챔피언 金喆鎬㊧가 눈언저리가 퉁퉁부어오른 마루야마의안면에 오른쪽 펀치를 적중시키고있다。난타전끝에 金이 9회 TKO승。【釜山=金海雲기자】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⑭

5·16과 政界復歸

政黨參與 요청받고 共和發起大會에

한때 波瀾… 黨議長·選擧사무장 맡아

『올 것이 왔구나』 5·16의 아침 나는 차라리 홀가분한 심정이었다。

동지들과함께 「救國의 擧事」를 도모하던 나는 대신 나라를 걱정하는 양식있는 장교들이 거사를 했음을 알고 큰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求心體가 軍내부에서 부패●非理를 추방하려한 整風운동의 旗手들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마음을 놓았다。

지난날의 정치인들을 생각해보았다。갖은 술수와 음모로 정치테러를 자행하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與圈의인물들、말로는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정치적 사치병에 걸려있던 인물들、겉으론 허름한옷차림으로 議政壇上에서 민주를 외치며 자식들은 일찍기 외국에 빼돌려 호사시키던 表裏不同한 야당의 어떤 인물등。

사람들은 다 제멋에 산다했지만 해도 너무 심했다는게 그들에 대한 나의 평가다。

군사혁명이 난지 10여일뒤 누군가가 나를 초청해서 갔더니 그는자신들의 혁명과 방향을 소상히 설명해주었다。당시아스토리아호텔에서 만난 인사는 자신을 金鍾泌이라고 소개했다。

나는 그로부터 한참 얘기를 듣고나서 『피를 흘리지않고 혁명을이룩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그에게 5·16의 배경설명도 자세히 들었다。그는 도와달란 말같은 것은 하지않고 나의 반응을 떠보려는 눈치였다。

그후 몇번 그를 만나 의견교환을 했다。그들은 이른바 政界의 요인들로부터의견을들어보려한것이다。

이듬해 어느날、한 청년이 날 초청하러왔다。그래서 갔더니 정당을 만드는데 참여 해달라고했다。나는 자격이 없다며 여러번 그청을사양했다。

私心없이 그들을 도와줄 마음은 들었으나 政黨이란 말에 영 마음이 꺼려졌다。지난 세월 하도당하다보니 정당이라면 「직업적인 허영의 口頭禪」이란 좋지않은 인식이 내머리속에 꽉 박혀있었다。그러나 나는 그들의 끈질긴 청을 끝내 뿌리치지 못해 얼마뒤 열린 創黨발기대회에 참여했다。민주공화당의 胎動이었다。그런데 창당발기대회의 面面을 보니 30、40여명중 내가보기엔 몇명을 빼고는 自由黨에 관계했거나 그와 유사한 인물들이었다。나는 적이 실망했다。이래가지고 어떻게 새정당을 할수있겠나 싶었다。

그러는중 또 한갈래의 창당작업이 진행되면서 미묘한 움직임이 일어났다。혁명주도세력 내부에 장차 민간정부에서의 참여와 「主導」문제를 놓고 알력이 싹튼것이다。얼마뒤엔 金鍾泌씨가 「自意半 他意半」이란 外遊를하고 낯선 인물들이 또 들어왔다。그러면서 정당은 조직、운영등에있어 정당이라기보다는 「徒黨」비슷한 양상을 띠었다。나는 계속 참여할것인가를 두고 進退維谷에 빠졌다。

◇民主黨政權下의 혼란속에 5·16이일어나자 나는 필연적인 歸結이라고 생각했다。사진은 建國前부터친구였던 林炳稷 前유엔대사㊨、任永信 前中央大총장㊥、左는筆者내외。

63년 어느날、朴正熙최고회의의장이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軍은 본연의임무로 돌아간다」며 자신의 「退陣」의사를 비쳤다。그런다음 共和黨을 해체하라는 말이 내귀에 들어오고 某黨에 합치라는 압력이 미치고하더니 중요간부들이잇따라 黨을빠져나갔다。당시 한 책임간부는『10일내에 共和黨을 해체하지 않으면 어려울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뜨기도했다。

나는그때 政治人들에게또 정치를 맡겨선안된다는 생각이었다。때문에 黨에서 부패와 혼란의 재발을 막기위해선 혁명의 主體가 救國의 혁명정신을 책임지고 실천해야한다고 주장했다。나는『다시 혁명을 해야한다』고 외치면서『나혼자라도 공화당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나와함께 宋鎬夏、金益俊、金鎔鎭、金東煥、吳元善、徐相濟、金晟鎭등30여명이 黨을 지키겠다고 결의했다。그날로 나는 무거운짐을 지고 나섰다。

그때나는최고회의사람들을2차례 만나『공화당을 중심으로 정치를 바로잡고 救國刷新할것』을주장했다。한번은 최고회의건물(현 경제기획원)에서였고 또한번은 조선호텔에서였다。결국 朴의장은 공화당에입당했다。

공화당이 63년2월 創黨大會에이어 5월전당대회에서 朴의장을 대통령후보로 지명했을때 나는 임시의장을 맡아보고 이어 黨의장에 선임됐다。그해 10월에실시된 제5代 대통령선거에선 선거사무장까지맡아 일했다。

공화당참여는 나로선 政界復歸였다。당시를 회상하면 여러가지 想念으로 마음이 착잡하다。초창기에 分派작용도 많았고 일부 「主體세력」의 권위주의에 마음이 상할때도 많았다。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50대도 물러나야한다…』는등의 얘기를 거침없이 할때는 꾹 눌러 참긴 했지만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다。

당시 공화당에 대해선 빨갱이정당이라는 모함도 있었고 한 외국인사는 나에게 공화당이 상서롭지못하다는 얘기를 넌지시 하기도했다。그때 나는 그 외국인에게 『새물결에 대해선 그만큼 낡은 보수세력의 저항도 있게마련』이라며 『선거결과를 두고 보라』고 말한 기억이난다。

張壬錫·許永模 결승서 敗北

월드컵 아마복싱 종합5位에 그쳐

【터론토支社=鄭慶成기자】한국은 18일밤(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폐막된 제2회 월드컵 아마복싱대회 결승에서 張壬錫(밴텀)、許永模(라이트플라이)가 모두 패배、은메달2개 동메달4개로 토틀8점을얻어 종합5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번대회의 우승은 金5銀3銅3으로 41점을 얻은 北美대표(美國·쿠바)에게돌아갔으며 유럽A(소련)및 유럽B(불가리아)팀이 각각2、3위를 차지했다。

◇종합순위 ①북미 41점 ②유럽A36점 ③유럽B12점 ④캐나다·남미10점 ⑤한국 8점

忠義、준결진출좌절

濠에 1對0勝불구

【방콕18日=聯】킹스컵축구대회에 출전중인 한국의충의팀은 18일 하오 방콕국립경기장에서 벌어진 예선리그마지막 경기에서 강호 호주를 1-0으로 꺾었으나 3승2패로준결승진출이 좌절됐다。

충의는 이날전반15분 朴成華의센터링을 하덕윤이 슛 결승골을 따냈다。

충의는 이날방콕에서 남서쪽으로 1백89km떨어진 코튼차나부리서 벌어진 같은B組 마지막예선에서 폴란드가 북한에 1-0으로 지는바람에 준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다。

한국、말레이지아 大破

亞洲남자籠球 오늘中共과 覇權다툼

【캘커타18日=聯】한국남자농구팀은 18일 진행된 제11회 아시아남자농구 선수권대회 결승리그 4일째 경기서 말레이지아를 1백10-85로 꺾고 4연승을 기록、20일열리는 최종전서 대회패권을놓고 중공과 숙명의일전을 벌이게 되었다。

◇결승리그 제4일

한국 110 (38 48 / 72 37) 85 말레이지아
(4승) (4패)

내년7~8月에 趙五連 도버海도전

大韓해협횡단에 성공한 아시아의 「물개」趙五連이 내년7、8월께 英國 도버해협횡단도영(渡泳)에 나선다。

내년3월 창업20주년을 맞는 韓國자동차보험(대표 金榮東)이 추진하는 「趙五連도버해협횡단도영사업」은 20일 6명의 도영단(渡泳團)을 구성한후 21일부터 내년 7월19일까지 2백40일동안 3차에 걸쳐 체력및 수중훈련을 갖고 7월20일에서 8월19일사이에 해협횡단에 도전할 계획이다。

대니얼 女子프로골퍼 20만弗最高

【뉴욕17日聯=聯】美國의 여자프로골퍼인 베스·대니얼은 81년 한햇동안 모두 27회의 美여자골프대회에 참가、20만6천9백77달러(약 1억4천5백만원)를 벌어 최고수입을 기록했다。

①베스·대니얼=20만6천9백77달러 ②조앤·카너=20만6천6백48달러 ③패트·브래들리=19만7천50달러 ④도나·카포니=19만3천9백16달러 ⑤잰·스티븐슨(濠洲)=18만5천28달러 ⑥낸시·로페스·멜튼=16만5천6백79달러 ⑦에이미·알코트=14만9천89달러 ⑧샐리·리틀(南阿共)=14만2천1백35달러 ⑨홀리스·스테이시=13만8천9백8달러 ⑩캐시·휘트워드=13만4천9백37달러

英·北아、결승進出

월드컵 蹴球예선

【뉴욕·파리18日AP=聯】英國과 北아일랜드가 18일 82년도 스페인 월드컵축구 유럽예선 4조와 6조에서 헝가리와 이스라엘을 각각 물리침으로써 西獨에 뒤이어 결승진출이 확정됐다。유럽예선 4조에 속한 英國은 이날 웸블리 경기장에서 벌어진 헝가리와의 대전에서 전반14분만에 1골을넣고 승리했으며 北아일랜드는 벨파스트에서 열린 유럽예선 6조에서 이스라엘을 1대0으로 눌러 결승진출권을 따냈다。

블론디

本社特約·連載漫畫 딘·영作

"이상하게도 먹다남긴 칠리를 아침식사로 먹고싶은 생각이간절해" ※칠리=열대 아프리카 고추로만든 멕시코요리

"정말이죠。좋아요… 당신이 정말로 원한다면"

"아무말 말아라。아빠가 아침으로 칠리를 드실테니까"

"내가 칠리에 크림을칠때까지는 식구들이 그대로 봐주었는데…"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모눈종이 위의 生 <258>

趙善作 金光培畵 ㉕

J시인은 잠시 움칫했지만 잠자코 있었다。그런데 이번에는 안경낀 신문기자가 나섰다。

『글쎄。나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오프닝때 와서 보았을때도 은딱지가 붙어 있었는데…혹시 그거 J형이 일부러 붙여 놓은 거 아뇨?전시 끝나면 미스A를 몰래 만나 살짝 전해주려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출판사 P사장이나 소설가 M씨、영화 감독 V씨 등、몇몇 사람은 이제(미스A)가 누구를 가리키는 익명(匿名)인가 모두 아는 표정이 되었다。

『사람이 엉큼하기는 말야』

하고 소설가 M씨가 J시인을 흘겨 보았고、출판사 P사장도 한마디 거들었다。

『전해주는 일은 내가 말을시다。못본지 하도 오래여서…』

그때까지 잠자코 있기만 하던 J시인이 괴롭게 입을

열였다。

『누가 말아도 전할 수는 없을거요』

『왜? 어디 이민이라도 갔나?』

하고 P사장이 물었고、침울한 목소리로 J시인이 대답했다。

『죽었대。자살이래。너댓달 전이라는데 나도 오늘 알았어』

잠시 분위기가 숙연해졌다。J시인은 시선을 돌려 먼산을 보듯했고、소설가 M씨、안경잡이 신문기자、영화감독 U씨、그리고 P사장도 잠시동안은 아무말 못했다。소설가 한민일은 그들의 대화를 듣는둥 마는둥 한쪽에서 술만 마시고 있었다。

그는 미스A의 죽음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지 큰 충격을 받은것 같지는 않았고、오히려 큰 키를 꾸부정하게 세운채 자작으로 자꾸만 술을 따라 마신것이다。

그때 나는 그 J시인의 부인이 들어가겠고 그녀가 끼게 되자 술을 한잔씩 권하는 등 분위기가 다시 소란스럽게 바뀌었다。술잔을 조금씩 입에 대는 시늉만 하던 부인이

『저쪽에도 좀 가봐요』

하며 J시인을 화가들이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P사장이 한민일의 소매를 툭 치며 말했다。

『미스 A를 쓰면 어떻겠소?』

한민일은 잠자코 있었고、P사장이 다시 주위를 둘러 보며 말했다。

『그럴듯한데?안그래 M형?아、이거 팔리겠는걸。U형、영화는 어떻거같애?왔다지?자살까지、당신부터 시작해서 J、U、M、여기 신문기자 선생도 좀 껴주고…자기만 빠졌다고 늘 불평이었으니까 말요』

신문기자가 말했다。

『난 끼지마。재수없어』

『그래?그럼 날 끼워줘』

라고 P사장이 또 말했다。

『좋은 나한테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그래도 라스트는 당신에 대한 순애(殉愛)로 가는거야。당신이 이거 한편으로 빛났고…』

그때였다。

한민일의 주먹이 P사장의 왼쪽턱으로 날아갔고、P사장은 비틀하며 탁자 모서리를 잡고 쓰러졌다。그 바람에 탁자보가 당겨지면서 탁자 위에 놓여진 술병과 술잔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다른 탁자에서 마시던 사람들이 돌아보았고、한민일의 근처에 있던 U씨、M씨등이 한민일을 붙잡았다。한민일은 그를 말리는 U씨、M씨등을 뿌리치며

『개새끼』

하고 중얼거린 다음 화장실 쪽으로 나갔다。

P사장은 입안에 피를 모금 물며 일어났다。그리고 그의 부상을 근심하며 다가오는 사람들과 한민일이 나간 화랑의출입구를 번갈아보며 말했다。

『저 친구 왜 그래?』【끝】

流星의 賦 <239>

李炳注作 李友範畫

感傷異國月 ⑤

수길이 버럭 고함을 질렀다。

『자네 설마 내 실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구주(九州)를 공략하기 위해 나는 24국에 군령(軍令)을 내렸다。게다가 이번엔 구주 일원(一圓)이 불따(博多)에 축성(築城)하고 있는 중이다。언제 이건 출전할 수 있다는 이 말이다。이런 사정까지는 고려왕(高麗王)에게 알려 줘 순순히 출사(出仕)하기만 하면 쳐들어가지 않겠다고』

종의조(宗義調)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조선은 말할 나위 없이 일본이 아닌 것이다。그런걸 수길은 조선을 일본의 구주나 사국(四國)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사람에겐 일본과 타국의 구별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니 종의조는 등골이 오싹했다。그러나 이런 말을해 볼 도리도 없었다。

『알았지?빨리 배를 마련해!』

『예、그일 같으면…』

『알았으면 좋다。고려를 족치는 것쯤은 두 달이면 될 거 아닌가』

하고 수길은

『붓과 종이를 준비하라』

고 측근에게 일렀다。

준비가 되자 구술(口述)하기 시작했다。

『수신자(受信者)는 기다만도꼬로(北政所)로 해라。그 사람에게 전해 놓으면 모두들 알게 되겠지』

기다만도꼬로란 수길의 정실(正室)이다。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일렀다。

『어제 사쓰마에서 히고로 돌아왔소。하까다엔 성(城)을 만들도록 명령을 내리고 6월중 모리(毛利)로해서 7월 중순엔 대판으로 돌아가겠소…고려

가빨리 우리 조정으로 출사하도록 종의조에게 명령했소。만일 출사하지 않겠다면 정벌의 군대를 보낼 참이오。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라꾸니(唐國=中國)까지 손에 넣을 작정인즉 기대해 보시오。부쩍 흰머리털이 늘어 뽑기도 힘들게 되었소』

그리고는 조금 사이를 두고

『다음은 시마즈(島津)에 관한 소식을 알려야겠군』

하고 수길 자신이 붓을 들었다。이러한 경위로 해서 종의조의 부하 귤강광(橘康廣)이 조선으로 왔던 것인데 조선은

『수로(水路)가 미매(迷昧)하여 통신사를 보낼 수 없다』

고 함으로써 귤강광이 허행(虛行)한 셈으로 되어 목을 쳐 죽였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다。

과잉 충성하는 부하들이

『대합전하(大閤殿下)의 위광(威光)이면 조선이나 명나라가 신종(臣從)하지 않을 까닭이 없읍니다』

『만일 불응하면 정벌군(征伐軍)을 보내십시오。한달 넉넉 잡고 두달 안으로 해치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후엔 수도(首都)를 북경(北京)에 두어야 그야말로 천하를、호령하면 그 얼마나 장관이겠읍니까』

이런 아첨을 함으로써 수길의 과대망상증을 더욱 부풀게 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그것이 무모(無謀)한 짓인 줄을 알고 은근히 말리려고 한 극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천이휴(千利休)가 바로 그들 중의 하나이다。

533-2361 구독신청은

한국일보 안내광고

구혼
1939년생 남자
결혼에 실패한 가족없는 여자원함
☎: 742-1671 Mr. 유

집·방세·하숙
집세놓음 DAVENPORT — OLD WESTON RD
3베드룸, 2화장실
☎: 536-8506

서 울 식 품

13일(금) 부터 효력

◎ 무, 배추 $6.50(박스당) ※선물을 드리는 고로 무·배추의 실제가격은 박스당 $3.90정도에 불과 합니다.

	REG.	SPEC
●불고기등심 최상급 Lb.(10파운드제한)	2.69	2.20
〃 중 급 Lb.(10파운드제한)	2.49	1.96
●갈 비 Lb.(BOX제한없음)	1.69	1.29
냉동갈비 Lb.	1.49	1.05
●소 꼬 리 Lb.	1.35	.95
●참기름 깡통(일본제품) A품	10.90	9.50
〃 B품	10.50	7.40
●명 간 장 1gal.		6.90
●양 잠 피 1kg	2.25	1.80
●삼양라면 1박스(50개)당	최근일자 기입되어있음	15.00
●오징어젖 Lb.(특별가격)		.80
●김(100장)	19.99	13.90
●강냉이차(500 GR.)	1.69	1.49
●보 리 차(500GR.)	1.69	1.49

	REG.	SPEC.
●멸 치 젓 Lb.	2.99	1.99
●어리굴젓 Lb.	4.90	2.90
●한국고추가루 Lb.	3.95	2.90
●각종선물용 상품(gift) — 20% 할인		
●참살고추장	2.50	1.99
●된 장	1.50	.99
●달걀(1다즌, Large)		1.25
가게하시는 분은 1다즌당 1.23에 드림		
●물 미 역	1.39	.99

●무, 배추(1박스 구입시) 김장용 갈치젓($2.90) FREE
●무, 배추(2박스 구입시) 닭표간장($2.95) FREE
●무, 배추(3박스 구입시) 한국산 굴($8.00상당 2파운드) FREE
㊟다량입하 : 삼양라면, 삼양짜장, 새 칼국수
㊟SALE가격 : 스텐레스 다라이(양품) 다량입하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SHEPPARD. E. / KENNEDY / PITFIELD / McCOWAN / HWY 401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쥬스바 파타임 헬퍼구함
☎ : 438−0403(오후6시연락바람)

CHENILLE 재봉사 구함(경험자 시간당 : $6)
COSMO CRESTING's
☎ : 769−4726

스토아 헬퍼구함 (일요일)
(시간 : 12시~8시)
☎ : 921−0624(다운타운)

도나스샵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오후 4시~밤1시
☎ : 499−4459

"봉재사 급구"
●환경조건 좋음, 새기계만 사용, 다운타운에 위치.
●일감보장(경험있는분 수입보장)
●이미많은 한국인이 일하고 있음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X LTD
☎ : 446−1346(Mrs. 아버)

"동업자 구함"
중국음식점. 현재 한국인이 경영하고있음
희망자는 시설비 약2만불 정도. 경험유무는 관계없음
☎ : 656−0483(오후4시이후 연락바람)

에드몬톤에 위치한 자동차수리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주실 남자분 구합니다.
☎ : 533−2364(Mrs.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 남자 헬퍼구함
단 유경험자에 한함
저녁 4시~8시반까지
39BELSHAW PLACE
☎ : 368−8147

FAST FOOD 햄버거 식당에서 일하실 분을 구함 (BRAMPTON 지역) 유경험자를 우선으로 하나 이런 일에 흥미있는 분. 나이트 쉬프트 우대함
FIRE PIT.(HWY 7 & 케네디 로드, 브람톤)
☎ : 456−2828
ASK : PAUL KIM

사무실 청소하실분 구함(부부환영)
☎ : 446−1431, 291−7500

매니저 구함
도나스 샾과 햄버거샾을 완전히 맡아서 하실분.(약간 보증금 요함)
대가족 원함. 좋은조건
1468 QUEEN ST. W.
직접내방 요함(Mr. 박)

초저녁 청소하실분 구함
☎ : 962−0019

매매및 양도

여자분이 혼자 하실수 있는 CANDY SHOP 팝니다. (일요일은 문닫음)MALL안에 있음.
☎ : 278−3975

매매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성업중인 햄버거 샾 팝니다
☎ 530−0748 DAVID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849−0959, 7374~6

T.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 비지네스
빌딩＋분리된 3베드룸 방갈로 스카보로지역
좋은 인수조건 모게지 알선가능
CALL : BERNIE SEMELHAGO
☎ : 494−1651, 291−9879
MONTREAL TRUST

벡커 후렌차이스 매매
☎ : 231−1740 MRS. 강

매 매
PRIME WEST HILL에 위치한 성업중인 비지니스 야마하 모터싸이클, 스노우 모빌 세일과 서비스 직원이 항상 있음 가격 : $100,000
문의는 꼭 영어로 ☎ : 284−4751(JOAN MANUEL)
A. E. LEPAGE ONT. LTD. REALTOR

급 매
매우 깨끗한 2베드룸 아파트와 3베드룸 타운하우스를 저렴한 가격에 급매합니다.
사거나 팔기를 원하시는분은
Ms. 메리 이바타에게 연락요
☎ : 270−3930
277−2490
MONTREAL TRUST

대단히 성업중인 드라이 크리닝 비지네스를 건강상 이유로 양도코자함.
①금년도 매상 목표액 : $150,000 이상
②금년도 순수익 목표액 : $60,000 이상
☎ : 493−0429 (저녁8시~9시 연락바람)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479 WEST MOUNT AVE.
☎ : 653−4633 (Mrs. 코매스)

DONUTS SHOP 매매
낮은 지출과 함께 다운타운에 자리하고 있으며, 좋은 이윤을 갖는 WELL ESTABLISHED DONUT SHOP임. 도너스 샵에 흥미를 가진 분 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문의 바랍니다.
☎ : 1−735−0962(8 : 30AM~4PM)
1−735−7748(6 : 00PM~9 : 00PM) Mr. 한
WELLAND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HIGH PROFIT.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PREMIUM LOCATION.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ASK. MR전, MR. 진 ☎ : 745−5555

스토아 급매
멀 안에있는 버라이어티 기프트샵을 급매합니다.
주매상 : 3천2백달러
아스킹 : 3만5천달러
전화 : 223−8805
(MR. 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에 알맞는 도바코트와 GEARY코너의 스토아. 경쟁이 없는지역 1200Feet 렌트에 좋은 OFFER를 줌 ☎ : 535−1750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커피샵 매매
리스 : 17년. 렌트 : 450
월~금 영업 영업시간 8시반~6시
의사빌딩 내에 있음
☎ : 767−4653, 447−9736(Mr. Wong)

급매
버라이어티 스토아 장비일절 최저 가격으로 팔겠음.
☎ : 691−5360 699−2442

①버라이어티(주매상 5천, WESTON)
②버라이어티와 핀볼(주6일, 스카보로)
③그로서리(년매상 $700,000 주6일, 토론토)
☎ : 481−3443, 745−5485(황순일)
CANADA PERMENANT TRUST CO. REALTOR

스토어 장비 팝니다.
1500~2000스퀘어피트 꾸밀수 있는 장비임.
☎ : 886−2743
881−2019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200 아스킹 : $29000
☎ : 423−9899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244−2301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양 장 점

셀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홍

Modern Pianos
한일의 SOLOMON 피아노가 서울서 도착! 모던 피아노로 와서보고 구입하세요. ☎ : 665−5600
97NORFINCH DRIVE, DOWNSVIEW.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시설및 수리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자동차유리 : 전액무료(보험＋회사)(NO DEDUCTIBLE)
자동차 실내외 장식, MOON'S AUTO TRIM & GLASS
☎ : 638−0656(KEELE & FINCH) 정 해 문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2188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651−9324(B)
자동차 수리 일체). 226−5430(R)
20 ROGERS RD. 변 달 원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한 방 원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216 Weston, Ont.(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미 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8719(R) 허소피아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50% OFF)
☎ : 465−8167 (MR. 김, MR. 곽)

카펫·카텐

가나안 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라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기 타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해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wedding
•commercial •wall decors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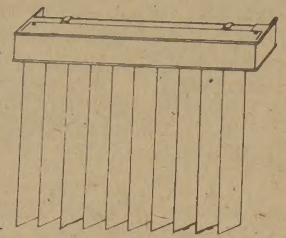
Young's JEWELLERY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 B) 284−9325 R) 281−1954 Mr. 남

왜 돈을 더 지불하십니까?

Your Drapery Shop at Rockwood Mall

WHY PAY MORE?

30% OFF



ANY VERTICAL DRAPES, WINDOW
SHADES AND BALI (VENETIAN) BLINDS

LINEN	LABOUR	SHEERS
$7.25 yd.	$3.00-$4.50 yd.	$6.50 yd.

WE OFFER YOU A HUGE SELECTION OF SPECIALS

I Beam Rail

5' — $2.80	8' — $4.20	10' — $5.20
6' — $3.35	9' — $4.85	11'-16' — $8.99
7' — $3.80		

GREAT SAVINGS ON ANY SIZE TRAVERSE SINGLE OR DOUBLE ROD

안녕 하십니까?
LUCKY DRAPERY는 개업한지 1년여가 다가옵니다.
그간 교민여러분께 인사 못들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
하며 우선 지면을 통하여 인사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LUCKY DRAPERY에서는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세련된 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1차 내왕해 주십시요.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을 모시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 최 원 보 배

For Custom made drapes or ready mades SAVE YOUR MONEY — SHOP AT

LUCKY DRAPERY Rockwood Mall

4141 DIXIE ROAD MISSISSAUGA
(딕시×버남돌프) JUST NORTH OF BURNHAMTHORPE

CALL WON B. CHOI 625—0698

영업시간 :
월요일~토요일
9 : 30~9 : 30PM
(X—MAS까지 토요일은
오후 9 : 30OPEN)

◆◆◆ 빅 · 세븐 선물센타 ◆◆◆

밍크-쇼

교민 여러분을 위한 PRE—**크리스마스 밍크—쇼**를 개최합니다. **최저가격으로 최고급의밍크** 를 사실수있는 기회를 드리오니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김 영 철 올림

LONDON FOG®

※런던FOG
바바리
SALE

날자 : 11월26일(목), 27(금), 28(토)

장소 : 빅 · 세븐선물센타 내(3일간)

◆◆ 40% OFF ◆◆

빅 · 세븐 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TEL : 533—7966